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명 조식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 미 선

남명 조식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 미 선

인 준 서

김미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조선 중기의 교육사상가인 남명(南冥) 조 식(曹 植; 1501-1572)의 교육사상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의 교육사상이 갖는 교육사상사적 의의와 한계점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남명의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가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생애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그의 교육사상의 핵심인 경의(敬義) 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사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의 교육사상이 갖는 교육사상사적인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남명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거듭되는 사화(士禍)로 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고, 부패한 관료와 민중의 유랑(流浪)으로 불안한 시기였다. 그가 관직을 포기하고 평생을 산림에 지내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한 데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는 조선 초기 성리학의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학풍을 이어받았으며, 지방에 살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여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천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남명이 백성의 어려움을 조정에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상소를 여러 번 올렸으며, 수차례 관직을 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사회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명의 교육은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민본주의는 민(民)의 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민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이 바르게 시행된다면 강제 없이도 질서가 가능하고 선한 공동체의 실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남명 교육의 핵심은 경의(敬義) 사상으로 요약된다. 퇴계가 경(敬)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한 것과 대비되게 남명은 경(敬)과 의(義)를 함께 강조하고, 실천적 교육으로서 지행일치(知行一致)를 강조하였다. 그는 경으로 자기 수양을 쌓고 이

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이룩하는 것을 의(義)로 보았으며, 의를 경과 대등하게 생각하였다.

교육 방법은 경전의 해석이나 이론적 설명보다는 글의 뜻을 마음에 새겨 자득(自得)하게 하였다. 그는 이론적인 해석이나 설명보다는 함축적인 도식(圖式)이나 비유를 통한 교육을 선호하였다.

남명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가의 사상을 수용하였으며, 폭넓은 독서로 개방적이고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하였다. 또한 당시로서는 드물게 문무병중(文武並重)의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에 그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의병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항쟁을 벌인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는 '무엇이나'라는 인식론적 교육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규범론적 교육을 중시하였다. 교육사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1) 도덕적 주체성 확립의 강조, 2) 실천 중시의 교육, 3) 다양한 학문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요약된다.

남명의 교육사상은 다음과 같은 교육사상사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조선 중기 교육의 이론적 관념화를 비판하고 실천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둘째,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모화사상(慕華思想)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실학사상(實學思想)의 기저를 마련하였다.

남명의 교육 사상이 지니는 가장 큰 한계는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저술로 남기지 않은 점이다. 저술 기피로 이론적 기반이 약한 남명의 사상은 연구의 어려움으로 교육사상의 계승과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의 교육사상이 지닌 또 다른 한계이다.

본고는 남명 조식의 교육사상과 특징을 통하여 교육사상사적인 의의를 찾고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왜곡되었던 남명의 교육 사상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과거의 교육을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살피지 못한 중국 사상이나 일본 사상과의 비교 고찰은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로 이어져야 할 과제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8
II. 시대사상적 배경과 남명의 생애	10
1. 시대적·사상적 배경	10
2. 남명의 현실 인식	15
3. 남명의 생애	22
III. 남명의 교육사상	28
1. 교육사상의 기본이념 : 민본주의(民本主義)	28
2. 교육 목적	31
3. 교육사상의 핵심 : 경(敬)과 의(義)	33
IV. 남명 교육사상의 특징	40
1. 도덕적 주체성 확립의 교육	40
2. 실천 중시의 교육	43
3. 학문의 개방성과 수용성	48
V. 교육사상사적 의의와 한계	51
1. 교육사상사적 의의	52
2. 한계점	60
VI. 결 론	6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장자』를 인용한 남명의 작품	14
<표 2>	남명이 제수 받은 관직	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세기에 일어난 산업 문명의 변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몇 백만 년 동안 겪은 변화를 능가한다. 그러한 변화가 몰고 온 충격과 혼란은 500년간 유교적 봉건주의에 단혀 있던 한국사회에 빠르게 증폭되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움직인 변동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¹⁾

첫째, 우리가 체험한 변동은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 한국의 인구 이동은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히 진행되었다. 196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지역 간 인구 이동률은 지금 20-2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직업 구조와 계층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변동을 추진하는 근본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지 않고 바깥에서 왔다. 변화의 동기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생겨났으며, 느닷없이 나타난 제국들의 질서에 성급하게 적응하는 양태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 변동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구에서 이미 제시된 목표를 맹목적으로 따라잡는 방식이었다.

셋째, 사회 변동이 매우 불균형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휩쓸리는 가운데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간에 유기적 연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그 중 핵심적인 지점인 교육 영역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배양해온 능력과 세계가 요구하는 능력 사이의 괴

1) 김찬호(2004), 『사회를 보는 논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22쪽.

리가 침예하게 의식되기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변화의 동기가 외부에서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누군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본뜨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능력에 교육을 집중시켰다. 학생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되었다. 막강한 한국인의 교육열과 엄청난 교육비에도 불구하고 삶과 삶을 아우르는 데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지식의 주체가 되어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머릿속에 가득 집어넣는데 급급하여 질문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으며, 자기의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적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렇듯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무기력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혹독한 현실이다. 소비 생활은 풍요로워졌으나 생산의 주체로서 자기를 세우기가 대단히 험난해졌다. 따라서 어느 세대보다도 강한 내공이 요구된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험난한 시대에 정신적으로 강한 내공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 16세기에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스스로 실천한 이가 바로 남명(南冥) 조 식(曹 植; 1501-1572)이다. 남명은 조선의 4대 사화(士禍)중 일생 동안 세 번의 사화(士禍)를 겪으면서 당대의 절의(節義) 높은 지식인들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파직되거나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도적이 되는 현실에서 살았다. 이 시기는 사상사적으로 사림(士林)들이 사화를 피해 향촌에 은거하면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주자학의 근본 문제를 깊이 천착하였고, 주자학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여 중국을 능가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자성리학이 현실을 외면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사상으로 흐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실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론적 성과를 높이 쌓던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남명은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개방적이고 박학(博學)적인 교육 사상으로 도덕적 함양과 사

2) 위의 책, 28쪽.

회적 실천을 강조하며, 평생을 교육에만 전념한 교육자이다. 그러므로 그가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어떤 사상으로 교육을 실천하였는지 고찰할 필요성을 갖는다.

지식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지식과 생각은 삶과 조응하면서 완성되어 간다. 궁극적으로 지식은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통하여 성취된다. 기존의 지식을 자기의 실존 현실에 비추어 점검하고 재구성하여 생각, 삶,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는 유기적인 순환 구조를 이룬다.³⁾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지식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위되는 삶을 그거로 지식은 늘 편집되고 재구성되며 또한 새롭게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삶의 시간적 축적이고 그에 대한 해석이다. 그 축적은 연속적인 과정인 만큼 오늘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고리들이다. 역사는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할머니, 나의 아버지의 생애에서 시작한다. 대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역사는 지배층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거기에는 피지배층의 관점과 체험이 거의 배제되어 버린다. 그러나 최근에 지배담론에 의해 은폐되거나 주변화 된 역사들을 찾아냄으로써 단일한 역사에서 다층적인 역사로의 이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⁴⁾

남명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으며, 남명학파의 수장(首長)이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복인 계열이던 그의 문인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역사의 주변으로 물러나면서 왜곡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남명 조식의 교육사상과 영향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3) 위의 책, 37쪽.

4) 위의 책, 39-48쪽 참고.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우리 사상의 존재 방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년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무의식(無意識, unconscious)'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이나 국가의 사상도 무(無)에서 유(有)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상이나 역사의 시간적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히 소멸하고 전혀 다른 종(種)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역사의 완전한 단절이란 없다.⁵⁾ 왜냐하면 역사란 인간의 무의식에 흐르는 삶과 문화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사상을 떠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상을 갖고 행동하는데, 그 사상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근거는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사상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⁶⁾ 그러므로 과거의 사상을 고찰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사상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남명(1501-1572)은 동년배인 퇴계(退溪) 이황(李 愷, 1501-1570)과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다. 퇴계의 문인들로는 조 목(1524-1606), 김성일(1538-1593), 유성룡(1542-1607), 정 구(1543-1620) 등이 있고, 퇴계의 문인들에게서는 주로 경(敬)을 실천하려는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또한 도덕적 자아의 내면적 각성과 계발에 힘썼다. 한편 남명의 문인들로는 오 건(1521-1574), 정인홍(1535-1623), 김우옹(1540-1603), 최영경(1529-1590) 등이 있고 남명 문인들에게서는 주로 절의를 숭상하는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퇴계 문인들에 비해 훨씬 개방적, 자주적, 창의적인 학풍을 보였다.

남명이 생존했던 조선의 16세기 초엽과 중반은 4대 사회로 이어진 격변기였다. 사림들의 정계 진출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많은 사림들은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처사(處士)'들로서 활동하였다. '처사(處士)'란 "덕이 성(盛)

5) 김용치 외 저, 조성을 역(1989), 『중국사상사』, 서울; 이론과 실천, 25쪽.

6) 위의 책, 10-11쪽.

하였으면서도 벼슬하지 않은 자” 즉 불출사자(不出仕者) 또는 미사지사(未仕之士)를 의미한다.⁷⁾ 이는 벼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념은 제세안민(濟世安民)에 있었던 지식인을 지칭한다. 이처럼 16세기 조선은 사림의 과거를 통한 중앙 정계 진출이 활발했으며 이들을 저지하려는 훈구 공신 세력간의 갈등이 사화(士禍)로 이어지면서 불안한 격동기였다. ‘처사’란 이러한 혼란기에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하여 학문과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내적 수양과 교화 활동을 쉬지 않는 사림들을 일컫는데 사용되었다.

남명은 수차례의 관직을 마다하고 일생을 산림의 처사로 학문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 현실 문제에 날카로운 지적과 시책 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의 교육학자 이만규는 그의 명저 『조선교육사』에서 당시 남명이 사변적 학풍에 휩쓸리지 않고 실천적 학문에 역점을 두어 교육한 것을 가리켜, “그의 교육이념은 교육상 가치로는 퇴계보다 진정한 것이요, 유학 방면으로는 퇴계보다 공자학의 바른 길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조남명의 교육사상은 이퇴계의 교육사상보다 훨씬 압도적인 것이다”⁸⁾라고 평하였다. 그렇다면 남명의 교육사상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교육사상이 갖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한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명은 성리학 이외에 노장 사상에도 심취했으며, 천문·지리·병법·의학 등 박학을 추구했던 그의 학문 성향은 주자학만을 고수한 퇴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단시되었다. 남명학파는 인조반정으로 남명의 수제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정인홍이 처형된 후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남명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에 의병으로 항쟁한 것과 관련하여 그를 비판적인 인물로

7) 『中文大辭典』, <處士>, “未仕之士也...古之所謂處士者 德盛者也”

8) 이만규(1986), 『조선교육사』, 서울; 한국학진흥원, 350쪽.

제외시키면서 남명에 대한 사상과 업적이 최근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우민화(愚民化) 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히 단절되었으며, 제국적 이데올로기에 굴절되어 한국의 역사 폄하와 왜곡은 근대화를 위한 정신적, 제도적 기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민족적 사기 저하와 자학적인 열등의식을 형성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⁹⁾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 조직적인 의병 활동으로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호하고 왜병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남명 제자들의 활동은 그의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식민지 정책과 교육에 저해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조선 유학사 연구가 퇴계학과 율곡학으로 정립되고, 주리파와 주기파로 정리되면서 남명학이 끼일 자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남명과 그의 사상에 대한 연구와 올바른 교육사적 정립이 필요하다.

남명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가치가 재고되면서 그동안 인식이나 연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재조명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6년에 남명학연구소가 설립되고,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1년에는 남명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그의 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47년에 출간된 이만규의 『조선교육사』는 남명의 교육에 관한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남명의 교육목적은 일상생활의 평이한 실천으로부터 공을 쌓아 성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

9)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2000), 『한국교육사』, 서울 : 교육과학사, 247-264쪽.

10) 이만규, 앞의 책.

남명 교육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상규¹¹⁾는 「조식의 교육사상 연구」에서 교육이념을 경(敬)과 의(義)로 규정하고, 교육방법으로 자해자득(自解自得)론을 도출하였다. 이상필¹²⁾은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사상과 학맥의 추이를 중심으로」에서 남명 사상의 특징으로 경과 의의 상호관련성을 살피고 '신명사도'의 노장적 요소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손병욱¹³⁾은 「남명 '경의(敬義)' 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수행」에서 정좌수행이 남명 공부 방법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경의의 실천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권인호¹⁴⁾는 「조선 초기 사립파의 사회정치사상 연구-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에서 남명의 학맥과 실학사상과의 관련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손영식¹⁵⁾은 「남명 조식의 주체성 확립이론과 사립의 정신(I)」에서 남명의 육왕학적 성격을 독창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II)에서는 주체적이고 강건한 자아 확립을 남명 사상의 핵심적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재명·전영국¹⁶⁾은 「남명 조식 교수법의 Comenius적 접근」에서 「학기도」의 도식화 교육과 직관 교육이 Comenius의 교수법과 상통하며, 『세계도회』보다 1세기나 앞선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김낙진 외¹⁷⁾, 박기용 외¹⁸⁾ 등 최근에 남명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왕성하게 일어

11) 한상규(1990), 「조식의 교육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2) 이상필(1998),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사상과 학파의 추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3) 손병욱(1992), 「남명 '경의'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수행」, 『남명학연구논총』 2, 남명학연구원.

14) 권인호(1990), 「조선 초기 사립파의 사회정치사상연구-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5) 손영식(1996), 「남명 조식의 주체성 확립 이론과 사립의 정신」, 『남명학연구논총』 4, 남명학연구원.

16) 사재명·전영국(2004), 「남명 조식 교수법의 Comenius적 접근」, 『남명학연구논총』 13, 남명학연구원.

17) 김낙진·권인호·김창욱·박기용(2001), 『조식의 생애와 사상』,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연구원.

18) 박기용·송준식·채휘균·한상규(2002), 『조식의 학문과 교육』,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연구원.

나고 있으며, 외국 사상과의 비교 고찰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 남명의 교육사상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교육사상사에서 위치한 역할과 그에 따른 한계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명 교육사상과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사상사적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명이 살던 시대는 정치,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가 주체적인 사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한 현실에 대한 남명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 2)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은 어떻게 교육에 반영되었으며 그의 교육 사상이 지니는 특징은 무엇인가?
- 3) 남명의 사상과 교육적 특징이 지니는 교육사상사적 위상과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고, 그의 사상이 지닌 한계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남명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이후 더 이상의 저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역설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기 보다는 성현이 밝혀 놓은 것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긴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저서는 시(詩)와 서(書), 부(賦), 명(銘), 기(記), 상소(上訴) 등이 수록되어 있는 『남명집』과 그가 독서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적어 놓은 것을 제자들이 근사록 체계에 맞추어 편집한 『학기류

편(學記類編)』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남명집』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그의 학덕에 해가 될 만한 문자를 삭제하거나 고쳐서 도리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부분도 있게 되었다.¹⁹⁾ 『남명집』의 온전한 국역은 1995년에 와서야 여러 판본의 내용을 교감하여 교감 국역 『남명집』(이론과 실천사)이 이루어졌다. 이 후 이를 수정 보완하여 2001년에 수정판(한길사)이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판 『남명집』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²⁰⁾

연구 내용은 제2장에서 조선 중기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사상적 배경을 살피고, 이에 대한 남명의 현실 인식과 생애를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교육사상의 기본 이념, 교육 목적과 교육사상의 핵심인 경의(敬義) 사상을 살핀 후, 제4장에서 교육사상의 특징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교육사상사적인 의의와 한계점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그의 교육사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명집』에 수록된 시(詩)와 서(書), 부(賦), 명(銘), 기(記), 상소(上訴) 와 『학기류편(學記類編)』과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학기도(學記圖)」 외에 관련 저서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문헌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19) 김윤수(1992), 「남명집의 책판과 인본의 계통」, 『남명학연구』 제 2집, 경상대학교.

20) 조 식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역(2001), 『남명집』, 서울 : 한길사.

앞으로 이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남명집』이라 하고, 해당 쪽수만 밝힌다.

Ⅱ. 시대 · 사상적 배경과 남명의 생애

1. 시대적 · 사상적 배경

가. 시대적 배경

조선은 건국 이후 약 1세기에 걸쳐 문치주의와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정치적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정치적 혼란으로 16세기의 조선은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혼란기로 접어들었다. 남명은 그가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기까지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등 다섯 명의 왕이 재위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시작된 무오사화(연산군, 1498)는 갑자사화(연산군, 1504), 기묘사화(중종, 1519), 을사사화(명종, 1545)로 이어졌다. 여러 차례 거듭되는 사화로 신진 사림들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학덕이 높은 학자들은 현실 정치를 외면하고 산림에 묻혀 성리학 연마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함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사화는 조선의 정치적 모순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유학자들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이러한 모순이 성리학 사상의 체계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형이상학적 이론 탐구에 몰두하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도덕적 이념의 구호가 아닌 실제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혁이나 실천을 중시하는 부류로 나뉘게 된다. 전자는 퇴계 이황으로, 후자는 남명 조식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후에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이루게 된다.

1545년에 인종이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죽고, 을사사화 이후 윤원형의 세도는 지방 수령의 탐관과 농민의 수탈로 이어져 생계가 어려운 백성들이 유랑하면서

사회의 민심이 흉흉하였다. 민생의 유랑²¹⁾은 16세기의 역사 현실에서 두드러진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유학을 통치의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유학은 현세를 중시하여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치국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민생의 유랑은 가족주의의 해체와 더불어 농업경제의 생산자인 농민의 이탈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계속된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은 도적이 되어 전국을 누볐다. 이 때 임궽정은 1559년부터 1562년까지 전국 5도를 누비며 관군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적으로 통하였다.²²⁾

사회가 혼란하고 국방이 허술해지자 왜구가 침입하여 사랑진 왜변(1544)과 을묘왜변(1555)이 일어났다. 을묘왜변은 왜구가 70여 척의 배를 끌고 전라남도 해안에 침입하여 성을 포위하고, 노략질과 약탈을 감행한 사건으로 민간에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어려운 민중은 더욱 피폐해졌다.²³⁾

이처럼 남명이 살던 16세기 조선은 이어지는 사회로 인하여 친척과 가까운 인물들이 누차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왕도 정치가 좌절되었다. 또한 민생이 피폐하며, 도적이 횡행하고, 왜구가 침범하여 노략질을 일삼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나. 사상적 배경

21) 세종대에 조사된 강원도의 전체 호수는 11,574호였지만, 명종대 중반에는 1,183호로 무려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절대 다수의 농민이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공전(公田)의 감소도 두드러져서 강원도의 경우 세종대 71,593결이던 공전의 면적이 명종대에 이르러 5,362결로 무려 13분의 1로 감소하였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명학연구원(2000), 『남명 조 식 선생』, 경상남도, 44쪽.

22) 박영규, 앞의 책, 213-216쪽

23) 위의 책, 217쪽.

남명은 15세기 사림파의 핵심 인물이자 영남 사림파의 거두였던 선배 학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을 존경했고, 그의 문도들과 함께 연구하고 활동하였다. 김종직은 남명이 출생하기 3년 전에 발생한 무오사화 때 희생되었다. 남명의 나이 19세 때에 발생한 기묘사화에서는 조광조가 희생되고, 숙부 조언경(曹彦卿, 1487-1521)이 파직되었다.²⁴⁾ 45세 때에 일어났던 을사사화에서는 가까운 친구들이 립(李霖, 1495-1646), 성 우(成遇, 1495-1546), 곽 순(郭珣, 1502-1545), 송인수(宋麟壽, 1499-1547) 등이 희생되는 불행을 겪었다.²⁵⁾ 남명이 스스로 사림의 처사로 일생을 보낸 것은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기의 시대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다.

영남 사림의 학맥은 거슬러 올라가면 망국의 한을 품고 절의를 지켜 영남 금오산 밑에서 후진을 양성한 야은 길 재(治隱 吉再, 1353-1419),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1454-1504),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로 이어졌다. 이들 초기 사림들의 성리학에 대한 관심은 세종·성종 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는 소학(小學)을 통해 익힌 성리학적 규범의 실천을 통한 유교적-성리학적 가치관의 보편화, 성리학적 명분론의 현실적 실현에 있었다.

이들은 성리학적 명분을 강조함으로써 명분에 약간씩의 하자가 있는 기존의 훈구 세력을 비판하고자 했다. 초기 사림들에 의하여 성리학이 현실의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훈구파를 비판하는 무기로 기능했다는 사실은 이후의 조선 성리학이 지니게 되는 역사적 기능으로 비추어 보아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 생각된다.

영남 사림의 핵심 인물인 김종직의 문도 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정여창(鄭汝昌, 1450-1504), 김굉필 등 성리학의 이론 탐구와 실천에만 전념했던 사림이 있고, 다른 하나는 김일손(金駟孫, 1464-1498), 유희인(兪好仁, 1445-1494),

24) 『남명집』, 연보, 601쪽.

25) 『남명집』, 연보, 602쪽.

남효온(南孝溫, 1454-1492) 등 성리학에 바탕을 두었으면서도 문학에 관심을 가졌던 사림, 끝으로 정희량(鄭希良, 1469-?), 홍유손(洪裕孫, 1452-1529) 등 도교 쪽에 치우쳤던 사림 등이다. 남명은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조광조 등의 문인(門人), 사숙인(私塾人)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들의 학문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남명은 정여창을 일컬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는) 천령(天嶺 ; 경남 함양의 옛 이름)의 유종(儒宗)이다. 학문이 깊고 독실하여 우리 도학(道學)에 실마리를 이어주신 분이다. …… 10층의 산봉우리 위에 다시 옥(玉) 하나를 더 얹어 놓은 격이요, 천 이랑 물결 위에 둥그런 달 하나가 비치는 격이라 하겠다. …… 장차 반드시 그들의 이름이 길이 세상에 빛날 것이다.”²⁶⁾

또한 남명은 김굉필의 행적을 자세히 적으며 “선생의 저 조심스럽고 온후한 도량과 재능이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으로 인한 재앙이 선생에게 미칠 바가 아니지만 끝내 화를 면치 못한 것은 천명(天命)이라 하겠다.”²⁷⁾라고 하면서 사회로 희생당한 그를 추념하고 있다. 이처럼 남명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도학자인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등을 존숭하고 본받으려 했다.

16세기 조선의 학계는 크게 네 학파로 나뉘어졌다. 개성을 중심으로 화담 서경덕의 사상을 따르는 화담학파, 진주를 중심으로 남명 조식의 사상을 따르는 남명학파, 안동을 중심으로 퇴계 이황의 사상을 따르는 퇴계학파, 파주를 중심으로 율곡 이이의 사상을 따르는 율곡학파가 그것이다. 이들 중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는 출사를 자주하였고, 화담학파와 남명학파는 출사를 꺼렸다. 출사를 꺼린 두 학파는 사회의 피해자이거나 사회를 피해 은거했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남명이 유가(儒家)로서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문혀 학문하는 경향

26) 『남명집』 「遊頭流錄」, 358쪽, 374쪽.

27) 『남명집』 「書景賢錄後」, 379쪽.

은 조광조의 실천적 학문 경향을 계승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에 도(道)가 행해지면 나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물러나는 것을 출처에 대한 기본 태도로 인식하는 유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남명은 초야에서 성리학 연구에 힘썼으면서 동시에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기도 하고, 수양을 위하여 도교적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성리대전』, 『논어』, 『소학』, 『대학』, 『심경』 등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당시 잡학(雜學)으로 천시하던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학(醫學), 수학(數學), 병법(兵法) 등을 두루 공부하여 안목을 크게 넓혔다.²⁸⁾ 또한 도교와 불교 사상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장자』를 즐겨 읽어 '남명(南冥)'이라는 자호(自號)외에도 그의 시(詩), 부(賦), 명(銘), 기(記) 등에 『장자』를 인용한 작품이 다수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표 1> 남명이 『장자』를 인용한 작품²⁹⁾

『장자』의 편명	인용 작품
제물론(齊物論)	함벽루(涵碧樓), 호접루(胡蝶樓)
양생주(養生主)	증성동주(贈成東洲), 무제(無題)
인간세(人間世)	함허정기(涵虛亭記),
대종사(大宗師)	한훤당화병발(寒暄堂畫屏跋), 원천부(源泉賦)
재 유(在 有)	신명사명(神明舍銘), 신언명(慎言銘)
천 지(天 地)	증희감사(贈熙鑑師)
천 도(天 道)	경전(經傳)
산 목(山 木)	영리(楳梨), 차묵재음(次默齋吟)
전자방(田子方)	서이균원길소증심경후(書李君原吉所贈心經後)
서무귀(徐無鬼)	제고병자수질(題古屏贈子修姪)
어 부(漁 夫)	행단기(杏亶記)

28) 『남명집』, 연보, 600쪽.

이러한 경향은 당시 유학 일변도의 사회에서 화담학파인 이지함, 서 기 등이 성리학파 노장(老莊) 사상을 절충하려 하였고, 남명의 교유인 김대유, 이희안 등이 무예에 관심을 보였으며, 은거 지식인들이 심신 연마를 위한 도교 양생 수련에 관심을 보였던 점들과 연관이 있다. 남명의 출처(出處)에 대한 인식은 당시 사림 처사들의 입장을 알 수 있으며, 그의 현실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6세기 조선은 사림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³⁰⁾ 거둬드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사림 세력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사회로 많은 학자들이 산림(山林)에 들어가 처사(處士)의 삶을 선택하여 정치참여보다는 학문 탐구와 실천 문제에 전념하였고 또한 향촌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즉 현실적 명분의 확보, 성리학의 학문적 발전, 향촌사회에서의 기반확보와 사림적 분위기 확산 등은 결국 선조 이후 정국을 그들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선조 즉위와 더불어 이들은 정계진출이 활발하여 정치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2. 남명의 현실 인식

29) 남명학연구원(2000), 『남명 조 식 선생』, 경상남도 발행, 79쪽.

30) 사림의 활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훈구파의 비리와 비행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양한 개혁정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직접적 비판으로는 방납(防納)의 피해, 토지 겸병(兼併), 공권력을 통한 농민의 사역 등에 대한 것이라면, 정전론(井田論), 균전론(均田論)의 제기, 방납(防納)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통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은 사림세력이 추진한 개혁정책이었다.

형이상학적 이론 탐구를 중시한 퇴계에 비해 마음의 주체를 세우는 것을 강조한 남명은 도덕적 주체를 확립하여 도덕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고자 했다. 도덕의 추구라는 점에 있어서 둘은 일치하지만 동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사상을 적용함에 있어서 둘은 서로 방법적 차이가 있었다.

남명은 사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겠다.

가. 사림의 역할에 대한 인식

유학의 민본 사상은 묵가처럼 다수의 민이 일치단결하여 기존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민중혁명과 법가처럼 일인 군주의 절대 권위와 권력으로 소수 강자를 억제함으로써 다수의 민을 보호하는 패도정치³¹⁾의 중간에서 일인 군주, 소수의 강자, 다수의 민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위계를 그대로 두고 상하가 모두 자기반성과 교육을 통해 이기적 욕망을 절제하면서 가족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왕도의 길이고 유학 사상이 표방하는 이상적인 사회이다.³¹⁾

이때, 군주와 민 사이를 현실적으로 연결하는 계층이 사(士)다. 그들은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민과 같은 피치자(被治者)이고, 민의 입장에서 보면 군주와 마찬가지로 통치자이다. 또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군주와 구별되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점에서 민과 구별된다. 사(士)는 군주에 수족처럼 예속되는 관료도 아니고 군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는 귀족도 아니다.³²⁾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존경하던 김굉필·정여창이 목숨을 잃고, 19세 때에 일어난 기묘사화로 도학을 주도하던 조광조가 희생되고, 숙부인 조언경이 파직

31) 최진덕(2000), 「유학의 민본사상, 그 이상과 현실」, 김형효 외, 『민본주의를 넘어서』, 서울 : 창계, 180쪽.

32) 西順藏(1986), 「송대의 사, 그 사상사」, 具塚茂樹 外, 윤혜영 편역, 『中國史』, 흥성사, 27-314쪽.

되었다. 45세 때에는 을사사화로 남명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 이 립, 성 우, 곽 순, 송인수가 희생되었다.³³⁾ 이러한 현실에서 그는 단순히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에 은거한 것이 아니라, 사(士)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하였다. 대개 조광조의 왕도 정치 실패의 원인을 정치 이념의 진보성과 실현 방법의 과격성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당시의 정치 체제가 왕도 정치를 실현할 만큼 성숙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은 중종이 분명한 왕도 정치 이념에 입각한 성숙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며, 기묘사화 이후 오히려 성리학이 학문적으로 더 발전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³⁴⁾ 남명 또한 국가 통치의 권한을 지닌 군주가 성군이 되어 왕도 정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성군론(聖君論)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현실에 대하여 퇴계는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선비가 한 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꼴이 되어, 강직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면치 못하고, 아부나 하는 나약한 자들은 조심스럽게 남들의 눈치나 보고 아침하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 불로 뛰어드는 나방이를 본받아서는 안 되며, 담장 밑에 서 있다가 깔려 죽는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³⁵⁾

퇴계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시작하는 젊고 유능한 기대승에게 충고하는 이 글은 당시 절개 높은 선비들이 살았던 어려운 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퇴계 자신도 ‘낚시와 담장’을 피해 50세 이후 출사하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만 전념하였다.

33) 『남명집』, 연보, 601쪽.

34) 박영규, 위의 책, 191-194쪽.

35) 이 황, 『퇴계전서』 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答奇明彦」, 410쪽 ; 김기현 (1996), 「주리설의 확립과 도덕적 인간학」, 한국사상사연구회(1996), 『조선유학의 학파들』, 144쪽에서 재인용.

동시대를 살았던 남명은 일찍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출사를 거부하였으며, 처사로 지내면서 사(士)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는 사(士)의 역할이 자기 수양으로 도덕성을 함양하여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군주와 민을 연결하는 것임을 여러 번의 상소를 통해 보여 주었다. 「민암부(民巖賦)」에서 군주의 전횡이나 특권층의 횡포를 견제하면서 민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단성소(丹城疏)」³⁶⁾에서는 군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군주의 면전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군주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사(士)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무진봉사(戊辰封事)」에서는 군주에 예속된 관료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주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명은 당시 국가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았다. 즉 고아처럼 힘없는 어린 군주와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권력 독점, 부정부패의 만연, 서리의 횡포,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 흉년, 엄청난 세금과 공납을 피하기 위해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 걸인으로 떠돌아다니는 백성, 관가를 덮치는 도적 떼, 왜구의 침입과 약탈 등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그가 인식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방안에 정좌하고 앉아서 정제엄숙(整齊嚴肅)하고, 주일무적(主一無敵)하며, 상성성(常惺惺)하여 기심수렴(其心收斂)하고, 불용일물(不容一物)한 선비들이 우주의 원리가 이(理)인가 기(氣)인가, 아니면 이기(理氣)가 합쳐진 것인가 등을 고민하느라 빗자루로 마당 쓰는 법도 모르는 그들의 안일한 생각과 태도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험벗은 백성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사대부들이 계속되는 사화(士禍)로 바른 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후에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고 곧이어 정유

25) 『남명집』, 311쪽.

「丹城疏」의 원제는 「乙卯辭職疏」이며 1555년 남명이 단성 현감에 임명된 뒤 올린 상소이다.

재란(1597)이 일어나 7년간이나 전 국토가 왜구에 의하여 유린되었으며, 자신의 공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은 백성들의 시체에서 수 천 개의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관직도 없는 일개 산림의 처사인 그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토록 간절하고 과격한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士)의 역할을 망각하고 군주의 힘이 약한 틈을 타서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여 특권 관료로 변신할 경우 사림 정치가 봉당 정치로 전락하고 나아가 세도 정치로 전락함을 조선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명이 사(士)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교육과 사상이 관념화되면서 현실과 괴리되고 있음을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상과 철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또한 사회의 소수 계층에 제한된 일부 현상이 아닌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수용되고 반영되기에는 조정이 이미 흐려져 있었으며, 사상적으로 공감되기에는 진보적이었으므로 오히려 이단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나. 출처(出處)에 대한 인식

남명이 모두 열세 번에 걸쳐 임금의 소명을 받았으나, 다섯 번의 사양하는 소(疏)를 올려 자기의 정견을 개진했다.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 일당이 제거된 이듬해 명종 21년에 단 한 차례 상경하여 명종과 독대 한 뒤 8일 만에 귀향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처사로 일관하였다. 그리하여 화담학파를 이끈 서경덕과 더불어 대표적인 처사상(處士像)을 보여 주었다.³⁷⁾ 그가 처사로서 평생을 교육에 전념한 것은 사림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와 사상에 대한 저항의

37) 이진표(2002), 『한국사상사』, 서울 : 학문사, 133쪽.

한 방법이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대우를 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직을 마다한 것은 뜻을 펼치기에는 낮은 관직이라거나 왕도 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그들 내면의 이유는 실권 없는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비판 세력을 무마하고, 절개 높은 선비를 등용하여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명분에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내려진 관직은 다음과 같다.

<표 2> 남명 조 식이 제수 받은 관직³⁸⁾

연 령	소명 연도	관 직 명	비고
38세	증종 33년(1538)	헌릉 참봉	이언적 천거
48세	명종 3년(1548)	전생서 주부	사불임
51세	명종 6년(1551)	종부시 주부	불임
53세	명종 8년(1553)	전생서 주부	불임
55세	명종 10년(1555)	단성 현감	사불임
59세	명종 14년(1559)	조지서 사지	불임
66세	명종 21년(1566)	상서원 판관	왕과 면담 후 귀향
69년	선조 2년(1569)	종친부 전첨	불임
72세	선조 5년(1572)	사간원 대사간	사후 증직
사후	광해군 7년(1615)	의정부 영의정	정인홍에 의해 추증

남명의 출사 거부는 이러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권력과 부패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에 이용되지 않으려는데 있었다. 그는 당시의 조정이 처사를 기용함으로써 사림을 약화시키려는 방편임을 간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38) 한상규(1990), 위의 책, 74쪽.

한 자를 펴기 위해 여덟 자를 굽히겠는가?

왕도정치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폐도정치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³⁹⁾

남명이 38세때에 복고(復古) 이언적(李彦迪, 1492-1553)이 자신을 천거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임하였다.

복고가 일찍이 나를 유일(遺逸)로 천거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나는 생각하기를 “그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 복고가 실로 나에게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문득 임금에게 천거하였으니, 남의 이야기만 듣고서 나를 칭찬하였다면 훗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나를 비난할 것이다.”⁴⁰⁾

을사사화(1545)로 반대 세력을 제거한 후,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고 민생의 유랑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남명에게 단성 현감을 제수하며 1548년, 1551년, 1553년, 1555년에 걸쳐 여러 번 그를 불렀으나 모두 마다하였다. 그리고는 을묘왜변이 일어난 1555년에 「을묘사직소」(일명 단성소)를 올려 당대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이들도 언급하지 못하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조정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는 평생을 처사로 지내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였으며, 삶의 무상함에 빠져 무위자연을 읊거나 단지 산 속에 은둔하여 숨지 않고 자신이 살아 있음을 다음과 같은 여러 편의 시(詩)를 통하여 알렸다.

..... (중략)

사람들이 바른 선비 사랑하는 건
호랑이 털가죽 좋아하는 것과 비슷해

39) 『남명집』, 「嚴光論」, 334쪽.

40) 『남명집』, 「解關西問答」, 341쪽.

살아 있을 때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은 뒤에라야 막 칭찬한다네.⁴¹⁾

절 부서지고 중 파리하고 산도 옛날 같지 않은데,
전 왕조의 왕은 집안 단속 잘 하지 못했다네.
조물주가 추위에 지조 지키는 매화의 일 정말 그르쳤나니,
어제도 꽃을 피우고 오늘도 또 꽃을 피웠도다.⁴²⁾

지금까지 육십 년은 일찍이 하늘이 빌려준 게고,
앞으로 구름 낀 산에서 사는 것은 땅이 빌려준 거라네.
막다른 길에도 또다시 길 있나니,
그윽한 오솔길 찾아 고사리 캐어 돌아온다네.⁴³⁾

그는 당시의 현실을 ‘살아 있을 때 죽이려는’, ‘추위’, ‘막다른 길’ 등으로 표현하면서 정권의 횡포와 타락한 도덕성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선비사랑’, ‘지조’ 와 같이 깨끗하고 청렴한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타락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또 다시 길 있나니’, ‘고사리 캐어 돌아온다.’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남명의 엄정한 출처관은 선비의 높은 기질을 숭상하고, 관직보다는 학문과 교육을 높이 평가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3. 남명의 생애

남명 조 식(1501-1572)의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경남 합천의 외가에서 태어났

41) 『남명집』, 「偶吟」, 68쪽.

42) 『남명집』, 「斷俗寺政堂梅」, 83쪽.

43) 『남명집』, 「山中卽事」, 84쪽.

다. 남명의 모계는 단성현(丹城縣)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던 신흥사족이었다. 남명의 부친 조언형(曹彦亨)은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좌랑,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했던 관리였다.

남명의 생애는 그의 활동 내용과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본다. 즉 과거 공부와 학문의 전환기(30세 이전), 성리학에 몰두하던 산해정 시절(30-47세), 직언을 서슴치 않던 뇌룡정 시절(48-60세), 그리고 ‘경의(敬義)’를 실천한 산천재 시절(60세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⁴⁴⁾

가. 과거 공부와 학문의 전환기

남명은 7세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8세를 전후한 시기에 남명은 성 운(成運), 성 우(成遇) 형제와 가까이 지내며, 경전류(經典類)나 자사류(子史類) 뿐만 아니라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학(醫學), 수학(數學), 병법(兵法) 등 다방면에 걸쳐 독서하였다.

19세에는 기묘사화(1519)로 조광조가 사사되고, 숙부인 조언경이 파직되었다.⁴⁵⁾ 도학정치를 주장하던 사림들이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세력 싸움으로 처참하게 죽어 가는 모습은 그가 현실정치에 회의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5세 때에 『성리대전』에서 원대의 주자학자로 과거를 위한 학문을 반대하고,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주장하였던 허노재(許魯齋, 호는 衡; 1209-1281)⁴⁶⁾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학문의 전환점을 삼았다.

44) 『남명집』, 33-40쪽.

45) 『남명집』, 연보, 601쪽.

46) 허노재는 원대의 대표적인 주자학자이다. 그는 과거만을 위한 학문, 즉 학문의 수단화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경서의 자구 하나하나에 구애되어 주자의 주석을 통째로 암기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당시의 풍조를 비판하며 “분서(焚書)가 다시 한번 있어도 좋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학문은 성인이 되기 위한

나아가 벼슬하면 나라를 위해 크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물러나 있으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대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나아가 벼슬을 해도 하는 일이 없고 물러나 은거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없다면, 뜻하고 배운들 무엇 하겠는가? 47)

남명은 이 때의 심정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다가, 하루아침에 문득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뵈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후 과거 공부를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나. 성리학에 몰두하던 산해정(山海亭) 시대

30세 때에 처가가 있는 김해 탄동에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18년 간 학문에 몰두하였다. ‘산해(山海)’라는 이름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학문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 시기 다음과 같은 ‘좌우명(座右銘)’을 벽에 걸어 두었다.

말은 믿음 있게	행동은 신중하게
삿된 기운 막아내고	참된 성품 간직하며
태산처럼 우뚝 서서	연못처럼 간직하면
솟아나는 봄꽃처럼	찬란히 빛나리라. ⁴⁸⁾

것’ 이라며 실천주의를 주장하였다.

김용치 외 저, 조성을 역(1989), 『중국사상사』, 서울; 이론과 실천, 265쪽

47) 『남명집』,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 253쪽.

48) 『남명집』, 「座右銘」, 161쪽.

31세에 쓴 『심경(心經)』 후록(後錄)에서 학문을 ‘마음을 죽지 않게 하는 약’에 비유하였다.

자기 마음을 저버리면 마음이 죽은 것이니 슬프기로는 마음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죽지 않는 약을 구했으면 먹는 것이 급한 일인데, 이 책이 아마 마음을 죽지 않게 하는 약이리라. 반드시 먹어서 그 맛을 알고 좋아해서, 그 즐거움을 알아야 오래갈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를 마지않을 것이다. 노력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 안자(顔子)와 같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느니라.⁴⁹⁾

이 때 남명(南冥)이라 자호(自號)하고, 강학(講學)을 시작하였다. 성 운(成運), 신계성(申季誠), 이희안 등과 교류했으며, 45세까지 제자를 양성하고 사우를 사귀어 학자로서의 기반을 갖추었다. 45세 때에 을사사화(1545)로 이 립, 성 우, 곽 순, 이 치 등 그의 벗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 시기에 18년 동안 산해정에 머물면서 학문에 몰두한 것은 이 후 뇌룡정(雷龍亭) 시기에 목숨을 걸고 시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며 직언을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다. 직언을 서슴지 않던 뇌룡정(雷龍亭) 시대

남명은 48세에 계부당(鷄伏堂)과 뇌룡정(雷龍亭)을 세워 강학(講學)하였다. 뇌룡정(雷龍亭)은 초야에 조용히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불의에는 벼락처럼 소

庸神庸謹 閑邪存誠 兵立淵冲 燁燁春榮.
49) 『남명집』, 「書李君原吉所贈心經後」, 258쪽.

리를 내고, 용처럼 나타나 도(道)를 외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48세에 전생서 주부(종6품), 51세에 종부사 주부(종6품)에, 55세에 단성현감(丹城縣監: 종6품)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대신에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조목조목 통렬히 지적하고, 국정을 비판하였다. 「을묘사직소」가 1555년에 뇌룡정(雷龍亭) 시기에 작성된 것은 ‘뇌룡’(雷龍)이 상징하듯이 ‘가만히 있어도 용처럼 드러나고, 침묵해도 벼락처럼 소리 내어 정신을 움직인다.’는 남명의 기질이 잘 드러나는 시기이다.

라. ‘경의(敬義)’를 실천한 산천재(山川齋) 시대

61세(1561)에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진주 덕산으로 이주해 서실을 산천재(山川齋)라 하였다. ‘산천’이란 『주역』 대축괘(大畜卦)에서 따온 말로 강건한 기상과 독실한 자세로 수양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방 양쪽에 ‘경(敬)’과 ‘의(義)’ 두 자를 크게 써 붙이고, 「神明사도명(神明舍寫圖銘)」을 걸었다.

67세에 윤원형이 실각하고 명종(明宗)의 특지(特旨)로 상서원 판관(尙瑞院 判官; 정6품)에 제수되자 입궐하여 명종을 직접 배알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어려움을 파악하고 곧 사직하고 돌아왔다.

69세에 명종에 이어 선조가 즉위하여 종친부 전첨(정4품)에 제수 되었으나 역시 사직하고, 이른바 「무진봉사(戊辰封事)」를 올려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으로 당시 백성의 곤궁함과 서리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정 구, 하 항, 유대수, 곽재우, 성여신 등이 내학하였다.

남명은 72세(1572)를 일기로 덕산에서 영면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조선 초기 세종 때에 이룩했던 정치적 안정은 성종 때 문치주의를 추구하기까지 잠시 안정을 취하였다. 그러나 남명이 활동하던 시대는 15세기 말에 연산군의 등장과 함께 16세기는 그동안 정비되었던 사회 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남명이 평생을 처사로 지낸 데는 16세기 조선의 역사적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처했던 사회적 환경은 그로 하여금 진리의 의미를 사회 역사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천 철학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가 관직을 포기하고 처사로 일관한 것은 그가 지닌 사상의 표출이며 실천의 한 방법이었다.

Ⅲ. 남명의 교육사상

1. 교육사상의 기반 : 민본주의(民本主義)

민본주의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민생을 중시하는 유교의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민본주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의 민(民)을 국가의 근본으로 중시하고, 민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민의에 따라 그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정치를 해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사회 사상”이다.⁵⁰⁾ 남명은 「민암부(民巖賦)」에서 자신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엮어버리기도 한다.

.....

저 밝은 감응이란 다른 데 있지 않으니,
하늘의 보고 들으심이 백성에게 있다네.
하늘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니,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와 같다.

.....

백성을 암험하다 말하지 마라!
백성은 암험하지 않느니라. ⁵¹⁾

50) 장승구(2000),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김형효 외, 『민본주의를 넘어서』, 서울 : 창계, 199쪽.

51) 『남명집』, 「民巖賦」, 153-157쪽.

민본주의의 기원은 주(周) 대부터 있어 왔다. 주공(周公)은 “물을 거울로 삼지 말고 마땅히 백성을 거울로 삼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부터 민(民)은 천(天)의 대변자로 등장한다.

공자는 민본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한다. 그것은 인(仁)과 서(恕)이다. 모든 인간은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공동체에서 주어진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맹자는 공자의 민본주의 사상을 정치사상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민이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군은 가볍다.”는 맹자의 선언은 유교 민본주의의 핵심이념이다. 덕치와 왕도정치는 민본주의의 구현이다.⁵²⁾

민본주의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한 본성을 기초로 한다. 민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선협적으로 공유하는 한 인간은 평등하여, 민은 지도자와 다르지 않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요순처럼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주학(程朱學)은 민본주의의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군주와 통치 엘리트인 사(士)들이 얼마나 올바른 의식과 철학을 갖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사(士)는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인품을 가리키는 개념이다.⁵³⁾ 그들은 기득권자에 맞서 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군주와 민을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주학에서 민본주의는 지나치게 이상주의로 치우쳐서 민의 감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경제생활의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중의 삶을 도리에 얽어맴으로써 내적 자발성을 억압하고, 민본주의의 실현을 위한 물질 토대의 문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⁵⁴⁾

그러므로 군주 또는 사(士)의 자세와 수양 정도에 따라 위민(爲民)이 될 수도

52) 장승구, 앞의 글, 201-205쪽.

53) 최진덕(2000), 「유학의 민본사상, 그 이상과 현실」, 김형효 외, 앞의 책, 176쪽.

54) 장승구, 앞의 글, 211쪽.

있고 해민(害民)이 될 수도 있다.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민본주의자는 민에게 경제적 착취와 수탈을 일삼으며, 각종 부역과 전쟁에 동원하여 그들을 의미 없는 죽음으로 내모는 위정자를 통렬히 비판한다. 남명도 공맹과 마찬가지로 민을 소홀히 하는 군주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는 단성현감을 사임하는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에서 문정왕후를 과부로 명종을 고아(孤兒)로 표현하여 벌을 내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글이라 하여 무사하였다.

자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외로운 아드님이실 뿐이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민심(民心)을 어떻게 감당해 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⁵⁵⁾

민본주의는 민의 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민은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객체가 아니며, 욕망을 유일한 척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이다.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만 바르게 시행된다면 폭력과 강제 없이도 질서가 가능하고 선한 공동체의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민에 대한 교육의 핵심 내용은 도덕과 예의에 대한 교육이 중시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인 오륜이 중시된다. 오륜은 예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된다. 오륜과 예법의 교육을 통해 민을 도덕적으로 각성시키고, 자발적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민본주의 국가이다.⁵⁶⁾ 남명은 일상생활의 도덕적 실천을 위한 윤리와 예절을 다룬 교과서인 『소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소학은 유학의 기본적인 윤리서로서 조선 초기부터 국가의 주도로 백성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남명은 민중을 직접 가르친 적이 없으며, 그의 제자 중에 일반 백성은 찾을 수

55) 『남명집』, 「乙卯辭職疏」, 314쪽.

56) 장승구, 앞의 글, 234-235쪽.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의 기저를 민본주의로 보는 것은 유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군(君) - 사(士) - 민(民)의 신분계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본주의 사상은 이러한 신분계급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이 현대의 민주주의와 다르다. 남명은 이 틀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이 위치한 사(士)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民)과 더불어 공동의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士)인 남명의 역할은 민(民)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내적 수양으로 이룬 수준 높은 도덕적 표양, 엄정한 출 처 관, 3년간의 시묘 살이, 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상소, 왕도 정치 요구 등이 모두 결국은 민(民)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은 민(民)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명의 교육사상은 민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사상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 전체를 감싸고 흐르는 대 전제는 민본주의 사상이다. 그는 모범적인 행동을 통한 교화(教化)로 간접적인 교육을 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사상은 군(君)보다는 민(民)으로 기울어 있다.

2. 교육 목적

유학자들은 우주와 합일된 성인의 경지를 추구한다. 유학의 깊은 뜻은 친(親)에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親)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시킨다는 데 있다. 즉 투철한 도덕적 자아의 확립을 기반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존재와 가치가 일치되는 경지,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⁵⁷⁾

57) 김용욱(1985),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민음사, 230-231쪽.

성리학의 교육론은 “인간이 수양 공부를 통해 자신 내부의 인욕을 없애고 본연의 성(誠)을 회복하면 존재 일반의 원리와 합일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이상적 인간이 ‘성인(聖人)’이며, 교육은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 스스로 성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공부’로서 ‘사람은 누구나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버리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을 받아들인다.

남명의 교육사상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다양한 독서와 사색으로 불교와 도가의 사상을 수용하고 여러 학문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철저하게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어느 성리학자보다도 천인 합일관(天人合一觀)의 토대에 철저하였다.⁵⁸⁾

그는 『학기류편』에서 「이기도(理氣圖)」를 통하여 이기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다시 천도(天道)의 입장에서 「천리기도(天理氣圖)」를 파악하고, 인도(仁道)의 입장에서 「인리기도(人理氣圖)」를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그의 이기설의 초점은 천인(天人)을 일관하는 원리를 찾는 데 있으며, 자연의 이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천인을 일관하는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보다 절실한 목표였다.⁵⁹⁾

성리학을 포함한 유학은 우주가 아닌 사회에, 천당과 지옥이 아닌 인륜과 일상사에, 내생이 아닌 현생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맹자는 “성인은 인륜의 극치다”(聖人, 人倫之至也)라고 했다. 성인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도 곧바로 선천적인 순수한 경지에 도달한다. 인륜적으로 사회의 일상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인의 인격완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남명은 엄격한 자기 수양을 통하여 인욕을 버리고 최고의 도덕적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으

58) 이희애(2000), 「조식의 학기도」,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유학』, 서울 : 예문서원, 71쪽.

59) 위의 책, 67-68쪽.

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으로서 사(士)의 본분에도 충실하였다.

이처럼 유학은 철저히 중용의 길을 밟아 극히 이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이며 실천적이다. 대립을 유지하면서도 종합적인 전체를 이룬다. 이런 종합을 이룩하는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그러므로 남명은 성리학의 주지적 관념론에 반대하여 이상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세속의 욕망에 빠지지 않는 자기 수양으로 경건한 태도를 굳게 지켜 이를 실천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남명의 교육방법을 목영해⁶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학문할 때 반드시 자해자득(自解自得)에 힘써야 한다.

둘째, 경(敬)과 성(誠)에 힘써야 한다.

셋째, 박문(博文)과 약례(約禮)를 중요시한다.

넷째, 배움을 넓게 하고 자세히 살펴서 생각하기를 신중히 하고 분별하기를 밝게 하여 배우고, 깊이 물어서, 신중히 생각하여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한다.

다섯째, 성리학 그 자체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실용된 학문을 하도록 한다.

여섯째, 사람들의 자질과 개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교육을 한다.

3. 교육사상의 핵심 : 경(敬)과 의(義)

남명의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경의(敬義) 사상이다.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요(內明者敬),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 (外斷者義).’

60) 목영해(2004),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 교육과학사, 88-89쪽.

이것은 남명이 수양의 상징으로 차고 다녔다는 『패검명(佩劍銘)』으로, 『주역』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의 ‘경(敬)으로써 안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의(義)로 행함(敬以直內, 義以方外)’에서 비롯되었다.⁶¹⁾ 그는 ‘경’의 의미에 ‘명(明)’을 포함시키고, ‘의’의 의미에 ‘단(斷)’을 첨부하여 송대 신유학의 이론적 개념과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강조하였다.⁶²⁾ 경과 의는 남명의 핵심사상으로 그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남명학을 ‘경의지학(敬義之學)’으로 요약하고 있다.⁶³⁾

“경(敬)은 성학(聖學)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으로, 초학자로부터 성현(聖賢)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을 주로 하는 것으로 도에 나아가는 방안을 삼습니다. 학문을 하면서 경을 주로 하는 공부가 부족하면 학문하는 것이 거짓이 됩니다.”⁶⁴⁾

또한 「무진봉사(戊辰封事)」⁶⁵⁾에서 어린 선조에게 경 공부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으며, 가슴속에 본심을 보존하고 밖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가장 큰 공부는 곧 반드시 경(敬)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이른바 경(敬)이란 것은 정제하고 엄숙하여 항상 마음을 깨우쳐서 어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른바, ‘경으로써 몸을 닦는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61) 한국사상사연구회(1996), 『조선 유학의 학파들』, 서울: 예문서원, 179쪽.

62) 이상필(1998),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9-30쪽.

63) 남명의 경의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상필의 「남명의 경의사상」과 손병욱의 「남명 ‘경의’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수행」이 있다.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이환 편저, 『남명 소식』, 서울: 예문서원. 151-165쪽, 304-311쪽 참조.

64) 『남명집』, 「示松坡子」, 234쪽.

65) 1568년(선조 1년)에 선조가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널리 어진 사람의 말을 구하므로 남명이 올린 글이다. 말년의 남명(68세)은 어린 왕에게 마지막 충성으로 이 상소를 올리고 서리의 폐단을 지적하는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을 주장하였다.

경을 주로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보존할 수 없고,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면 천하 이치를 궁구할 수 없으며,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면 사물의 변화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⁶⁶⁾

송대 이후 성리학자들은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경의(敬義)’에서 찾고 있다. 경과 의를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과 의를 학문 수양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송대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과 의미를 갖게 된 경과 의는 조선에 전달되어 학문적 체계화와 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다. 성현이 되기 위한 공부로서 경(敬)과 의(義)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이다. 인간의 내면을 맑고 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성리학에서 중요한 수양법이다.

정주의 이원론은 진지한 경(敬)의 마음으로 정신적 수양을 하여 엄격한 도덕성으로 욕망을 비운 성인이 되면, 우주와 내가 일치되는 도덕적 경지에 이른다는 주관적인 사상이다. 이 때 경(敬)이란 모든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성실이라는 신비로운 힘을 내면화하여 개인의 도덕적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며 방법이다. 이처럼 정주의 이원론은 명상적 진지함(敬)을 중시한 나머지 내면을 성찰하는 정적인 사상으로 변화되었다.

경(敬)의 교육 내용은 마음을 조절하고, 주재하고, 통재하는 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경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이 안정된 상태, 마음이 집중된 상태, 마음이 엄숙한 상태를 위한 교육이다. 경은 내면의 상태를 가치 있고, 바람직하게 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정은⁶⁷⁾은 경 공부 방법을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알기 쉽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66) 『남명집』, 「戊辰封事」, 320쪽.

67) 이정은(1995), 『퇴계 이황의 교육사상 연구-경 사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32-36쪽.

- ① 늘 몰두하는 마음 (主一無敵)
- ② 늘 다스리는 마음 (整齊嚴肅)
- ③ 늘 깨어있는 마음 (常惺惺法)
- ④ 늘 한결같은 마음 (欺心收斂不用一物)

남명은 학문 연구와 교육 방법에 있어서 경전의 해석과 설명적이고 이론적인 저술보다는 이론과 해석을 요약하여 함축시킨 도설(圖說)을 선호하였다. 『학기류편(學記類編)』은 이러한 남명의 성리학에 관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다.⁶⁸⁾ 이 책은 공부하면서 주로 송대 학자들의 학설을 요약하여 핵심을 적어 두었던 『학기(學記)』를 『근사록(近思錄)』의 체제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는 24개의 도설(圖說)인 「학기도(學記圖)」가 들어 있다. 「학기도」는 대체로 송대 학자들의 학설을 도표화한 것으로 성리학 기본구조에 대한 도설 15개와 학문의 요체에 관한 도설 7개, 수양에 관한 도설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17개의 도설(圖說)을 자작(自作)하였다.

「태극도(太極圖)」와 「이기도(理氣圖)」를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의 입장에 서 있으며, 어느 성리학자보다도 천인합일관(天人合一觀)에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천인관(天人觀)을 지녔던 까닭에 그는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 출처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또한 우주 자연에 합일된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⁶⁹⁾

『학기류편』 「역서학용어맹일도도」(易書學庸語孟一道圖)에서는 경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올바르게 거함(居業), 바른 것을 얻음(能得), 뜻을 진실하고 바르게 함(誠正), 몸을 참되게 함(誠身), 예로 집약하여 나타냄(約禮), 마음을 보존함(存心), 본성을 기름(養性)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자신에

68) 한국사상연구회 지음(2000),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 예문서원, 88쪽.

69) 위의 책, 58-88쪽.

게 익숙해지면 예(禮)로 나타나게 된다.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
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연의 성품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의(義) 교육은 마음이 외부와 작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마음이 외부 상황
과 작용할 때, 타당한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떤 상황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의(義)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올바른 관계이고, 왜 그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학기류편』 「역서학용어맹일도도(易書學庸語孟一道圖)」에 나타난 의(義) 교
육 내용을 살펴보면, 의(義)는 덕으로 나가는 길(進德)인데, 이를 위하여 널리 구
하여 익히고(博文),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궁극적인 앎에 이르고(格致), 그로 인
하여 몸과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며(知止), 그것을 바탕으로 선을 택하고(擇善),
선을 밝혀야 한다(明善).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盡心), 본연의 성품을 아
는 것(知性)이 필요하다.

경(敬)과 의(義)는 각각 마음의 안과 밖을 다스리므로 항상 동행해야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이다.⁷⁰⁾ 이 둘은 인간의 마음을 바람직하게 하여 개
인의 행위가 타당하고 올바르게 되는데 있다. 경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의 수행인
데, 이것은 의를 위한 바탕이 된다. 이것이 경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敬以直內),
밖으로는 의로 행함(義以外方)이다.

남명은 경(慶)과 대등하게 의(義)를 강조하였다. 그는 당시의 현실을 정통성과
명분을 잃은 사회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고민했다. 이때
그의 판단에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의(義)'이다. 그는 올바르지 못한 현실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옳은 판단을 내리고 이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70) 경은 내면과 아울러 몸을 참되게 하고(誠身), 예로 집약하여 나타내는(約禮) 외적 실천
까지 내포하고, 의는 외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선을 판단하는 과정에 이어 실행을 하
기 때문에 내적, 외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과연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를 진지하게 여러 각도에서 깊이 성찰하여 살펴보고 엄숙한 마음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敬)'이다.

그의 사상은 '경(敬)'과 '의(義)'가 핵심이다. 경(敬)은 의(義)를 찾기 위한 과정일 뿐 그의 사상의 중심은 의(義)에 있다. 경(敬)은 참된 의(義)를 구하는 과정이므로 경(敬)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보다 의가 우위의 개념이다. 의가 없다면 경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교육목적이 없는 교육과정과 같다.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도 없이 공부하는 것과 같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다. 경(敬)은 자아를 성찰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경(敬)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옳은 판단은 현실에서 행해 질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분명한 목적과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내려진 판단은 왕의 부름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지닌다. 이것이 '천 석들이 중'이며, '정신이 놀지 않는 칼'이며, '시동처럼 서 있어도 나타나는 용'이며, '천하를 뒤흔드는 우렛소리'이며, '대붕이 살고 있는 남쪽의 어두운 바다(南冥)'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살아 있는 정신이며, 크고 강한 자아이다. 그의 수양론은 이처럼 강한 자아, 거대한 자아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 직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가 체계적이고 형이상학적 이론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그는 소학을 기본으로 하여 논어와 맹자, 대학과 중용, 성리대전 등을 주요 교재로 사용했으며,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드시 숙독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이미 정밀하고 체계적인 이론서가 저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배우고 학습하는데 열중하는 것이 새로운 이론서를 저술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그는 새

로운 이론서를 저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주체적이고 강한 자아를 찾아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이론 탐구에 열중하지 않았으며 이렇다할 이론서도 없다. 그저 스스로 깨닫고 실천했을 뿐이다. 공자와 맹자도 그러했고, 길재와 정몽주도 그러했다. 그러나 주희와 퇴계는 달랐다.

이처럼 행동하는 지식인을 본받으려는 많은 제자들이 남명을 찾아와 배움을 청했지만 딱히 그가 가르친 내용도 없다. 다만 각자의 성향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찾아 알려주고, 지나친 부분은 가라앉히고, 뛰어난 부분은 격려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교육과정은 결국 그의 삶 전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세밀하고 정밀한 이론적 내용으로 위와 같은 크고 강한 자아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선택한 교육방법은 직관을 통하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었다. 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敬)의 태도와 의(義)의 정신이다.

이와 같이 남명은 경으로 자기 수양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이룩하는 것을 의로 보았으며, 의를 경과 대등하게 생각하였다.

IV. 남명 교육사상의 특징

1. 도덕적 주체성 확립의 교육

주희는 자연과 인간이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도덕률을 설명하는 원리인 이(理)와 자연의 물리적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인 음양오행(陰陽五行)은 일치한다고 본다. 그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자연과 인간 사회에 적용하듯이 이(理)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인간 사회의 법칙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이나 도덕률을 설명할 때는 유효한 개념이지만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예컨대 표범이나 개미에게 효와 예, 군신의 의리가 있다거나 배나 섬돌에도 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편견에서 나온 관찰이다. 이처럼 주희가 말하는 '이(理)'는 자연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남명은 형이상학적 '이(理)'의 탐구보다는 수양론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그는 마음의 바탕을 확립하여 살아 있다면, 일상의 모든 일에서 도덕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기만 하면 세부적인 행위에서 도덕률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고 보았다.

큰 기둥 같은 높은 산이 하늘 한 쪽을 버티고 섰다.

잠시도 내려놓은 적 없는데도, 자연스럽지 않음이 없다.⁷¹⁾

71) 『남명집』, 「偶吟」, 57쪽.

천 섬을 담을 수 있는 큰 종을 보소서.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없대요.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⁷²⁾

꽃봉오리 늘씬하고 푸른 잎 연못에 가득한데,
덕스런 향기를 이처럼 피어나게 했는가.
보게나, 아무 말 없이 뺨 속에 있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 빛나는 정도만은 아니라네.⁷³⁾

이처럼 그는 도덕적 주체성을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산’ ‘천 섬을 담을 수 있는 큰 종’ ‘뺨 속에서 덕스런 향기를 피어내는 연꽃’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합격이나 학문의 깊이도 도덕성을 주체적으로 함양하는 것만 못하다고 보고 만약 티끌만 큼이라도 몸이 더럽혀지면 배를 쪼개 씻어 내겠다는 철저한 자기 수양을 다음과 같은 시(詩)에서 강조하고 있다.

(중략)

과거에 합격하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떤가?⁷⁴⁾

(중략)

다섯 수레 많은 책의 의미도 ‘사(邪)가 없는 것’
한 가지 속에 있나니.⁷⁵⁾

사십 년 동안 더럽혀진 몸,

72) 『남명집』, 「題德山溪亭柱」, 60쪽.

73) 『남명집』, 92쪽.

74) 『남명집』, 96쪽.

75) 『남명집』, 「經傳」, 五車書在一無邪, 101쪽.

천 섬 되는 맑은 못에 싹 씻어버린다.
오장 속에서 만약 티끌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배 쪼개 흐르는 물에 부쳐 보내리.⁷⁶⁾

그러나 이와 같이 철저한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 하는 외롭고 고달픈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수처럼 맑은 물이 십리니 먹고도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봄 산 어느 곳엔들 향그런 풀 없으리오 마는,
다만 천왕봉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걸 사랑해서라네.
맨손으로 들어와서 무얼 먹고 살 건가?
은하수 같이 맑은 물 십리니 먹고도 남겠네.⁷⁷⁾

그의 주체적이고 강한 자아를 선명한 이미지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신명사도(神明舍圖)」와 「신명사도명(神明舍圖銘)」이다. 「신명사도」는 함축적으로 표현된 도설과 도가적 용어를 사용하여 경과 의의 의미와 역할을 매우 독창적 설명하고 있다.

신명(神明)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학』의 첫 구절의 주자 주석에서 이른바 “실체는 없으면서도 신령스러워, 온갖 이치를 갖추고서 세상만사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사(舍)는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집’이란 뜻이다.⁷⁸⁾

「신명사도(神明舍圖)」는 ‘경’이 신명인 태일진군(太一眞君)을 보좌하는 그림으로, 신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재의 역할을 하는 경이 절대적이며 동시에 ‘의(義)’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다. ‘경’에 의한 마음의 수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악이나 비리(非理)

76) 『남명집』, 「欲川」, 105쪽.

77) 『남명집』, 「德山卜居」, 105쪽.

78) 『남명집』 「神明舍銘」 162쪽.

가 귀, 눈, 입을 통해 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섬멸시켜야 한다. 이것이 '시살적 존양성찰(廝殺的 存養省察)'이다.⁷⁹⁾

밥 해먹던 술도 깨부수고 주둔하던 막사도 불사르고 타고 왔던 배도 불 지른 뒤, 사흘 먹을 식량만 가지고 사졸들에게 죽지 않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해야 바야흐로 시살(廝殺)할 수 있다.⁸⁰⁾

남명은 「신명사도명」 부주(附註)에서 내적 단련의 과정으로 항우(項羽)가 전쟁 시에 사용한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전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주체성을 세우는 내적 단련을 적과의 싸움에 비유하여 강조하고 있다.

2. 실천 중시의 교육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천(實踐)'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행함'이다.⁸¹⁾ 그러나 교육적 의미는 단지 이론에 반대되는 단순한 행함이 아니다. 매킨타이어(MacIntyre, 1981)는 인간의 잘 사는 삶의 부분으로 '실천'의 추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실천'이란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 인간 활동을 수행하는 일관되고 복합적인 양식으로서, 그 활동 양식에는 적절한 수월성 기준이 들어 있어서 그 활동 양식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규정해 주며, 그 활동 양식에 내재된 가치는 수월성의 준거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현되

79) 이상필, 앞의 책, 39쪽.

80) 『남명집』 1권(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神明舍銘」 附註.

이 부분을 포함한 15개 조항이 己酉本(1609) 이후에는 삭제되었다.

81) 민병수 감수(2004), 『새 국어사전』, 서울: 교학사.

고, 그 결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 및 활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체계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벽돌쌓기나 축구 공을 기술적으로 던지는 것은 실천의 예가 아니다.⁸²⁾

이와 같이 실천에는 내재적, 공유된 가치들이 포함된다. 돈, 권력, 명성은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외재적' 가치를 갖는다. 외재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개인에게만 배타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개인들이 더 많이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더 적게 소유할 수밖에 없으며,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그러므로 외재적 가치는 내재적 가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 선을 추구하고 덕을 실천하는 일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자로서 용기와 정직, 절제와 판단력, 성실, 지조, 인내 등 공적인 일에 필요한 덕목이 포함된다.⁸³⁾

이러한 역할과 실천의 배후에는 사상과 행위의 전통이 탄력성 있게 존속되고 소중히 아껴져야만 제도와 공동체는 번영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목적론적인 실천의 의미는 사회적 가치와 덕목이 포함된 것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차원의 행위이다.⁸⁴⁾

평생을 지방에 근거를 두고 살아온 남명은 관리와 서리의 횡포로 인한 과도한 세금과 흉년, 전염병, 왜구의 약탈 등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나 유랑할 정도로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윤리적 의무와 도덕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군주의 각성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시기 민중의 유랑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족-부자의 인륜을 기반으로 국가-군신의 치국에

82) John White저, 이지현·김희봉 역(2002), 『교육목적론』, 서울 : 학지사, 107쪽.

83) John White저, 위의 책, 107-109쪽.

84) 위의 책, 109쪽.

이르는 유학 사상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남명은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학문과 교육에만 전념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깊이 성찰하여 답을 구하고, 직접 실행에 옮김으로써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당시 학자들이 ‘물 뿌리고 비질하는 일’ 즉, 『소학』에 나오는 내용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형이상학에 몰두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天理)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 같은 장로(長老)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⁸⁵⁾

또한 남해에 가까운 김해의 산해정(山海亭)에서 18년간이나 학문과 교육 활동을 하였던 남명에게 왜구의 침략은 현실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는 이러한 현실 문제를 강학의 주제로 삼아 제자들에게 대책을 묻는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⁸⁶⁾

남명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전에 그가 이와 같이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의 교육사상이나 교육방법과 밀접한 연

85) 『남명집』, 「與退溪書」, 181쪽.

86) 『남명집』, 「策問題」, 349-352쪽.

남명은 왜구의 침탈과 대장경(大藏經) 인출 요구를 지적하면서 ‘조정에서 현명한 재상과 훌륭한 장수가 부지런히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허세에 무서워 별별 떨면서 어찌 대처할 바를 모르고 상중(喪中)을 핑계대고 있다. 적의 공격을 준비하는 계획이 없는가?’고 묻고 있다.

관이 있다.

남명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내면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이 경(敬)이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경(敬)이라는 것은 단지 경건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敬)의 중심에는 의(義)가 있다. 의(義)는 경(敬)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敬)의 목적은 의(義)다. 의(義)하기 위하여 경(敬)하는 것이다. 단지 경건하게 깊이 심사숙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민중의 유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엄숙한 마음(敬)으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義) 것인지가 중요한데,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가) 민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도망간 민중을 잡아온다.

나) 민중의 유량이 윤리와 사상이 정밀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고 인간과 심성의 원리와 우주의 이치를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여 체계화한다.

다) 민중의 유량이 생기는 가장 큰 현실적인 원인이 부패한 관리와 서리(胥吏)의 과도한 세금 징수임을 군주에게 알리고, 이들이 민중을 알보고 함부로 억압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라) 마지막 해결 방법은 민중이 주인이 되어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한다.

남명은 이 중에서 하나의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기에 앞서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진지하고 경건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가 선택한 것은 세 번째이다.

70세의 남명은 어린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戊辰封事)」에서 서리망국론(胥

吏亡國論)과 성군론(聖君論)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군민에 대한 모든 정사와 국가의 기밀이 모두 서리(胥吏)의 손에서 나오므로 포목과 곡식을 관청에 바치는 데에도 뒷길로 웃돈을 바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안으로 재물이 모이면 밖으로 흩어져, 열 명 가운데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각자 <자신이>맡고 있는 고을을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여, 문서를 만들어서 교활하게 자기의 자손 대대로 전합니다. …… 그러므로 공물을 가지고 바치러 갔던 자가 온 가족의 가산을 다 팔아서 바쳐도 그것이 관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전 개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바치는 공물을 계속해 바치지 못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잇달아 생깁니다. …… 여러 벼슬아치들은 제사상에 남은 희생만을 먹으면서 ‘예예’ 하며 물러납니다. 이들이 믿는 바가 없으면서 어떻게 이처럼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날뛸 수 있습니까? …… 전하께서 크게 성을 내시어 하늘의 기강을 한 번 떨치시고, 재상과 얼굴을 맞대고 그 원인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의 덕을 밝히지 않고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것은 배 없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서, 저절로 빠져 죽을 뿐입니다.⁸⁷⁾

하지만 그가 과거 시험장에서 ‘민암(民巖)’이란 시제에 따라 지은 글로 추측되는 「민암부(民巖賦)」에서는 민중에 의한 역성혁명을 경고하고 있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덮어버리기도 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니,
힘함이 안에 감추어진 것은 만만하게 보기 쉽다.
세금을 끝없이 거두어들임은 암험함을 쌓음이요,
형벌을 자행함은 암험함을 돌이킬 수 없게 함이다.

87) 『남명집』, 「戊辰封事」, 324-329쪽.

비록 그 압힘함이 백성에게 있다지만,
어찌 임금의 덕에서 말미암지 않겠는가? 88)

중요 부분만을 간추려 보아도 남명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주체적이고 강한 자아가 잘 드러난다. 그가 과거 시험에서 이런 글을 썼다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학덕과 의지를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사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사상이 지닌 실천적 특성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상은 이상으로 흐르기 쉽고, 인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본의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경(敬)과 의(義)에 따라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다.

3. 학문의 개방성과 수용성

남명은 현실 파악을 위해 매우 다양하게 공부하고 실제적인 일에도 관심을 두었다. 당시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이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모화사상(慕華思想)으로 중국의 역사는 외우고 있으면서도,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남명은 조선의 역사서인 『동국사략』을 붉은 점을 찍어 가며 읽었다.⁸⁹⁾ 이것은 그가 주체적인 사상을 정립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병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에 있어서 임금과 신하가 공경심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외침을 물리칠 수 없

88) 『남명집』, 「民巖賦」, 153-157쪽.

89) 박기용 외, 앞의 책, 184쪽.

음을 강조하고, 왜구의 침략에 따른 조정의 정책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을 묻는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⁹⁰⁾ 그는 당시 삼포왜란과 왜의 대장경 인서(印書)의 요구 등을 목격하고 임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병법을 가르쳤다. 2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손서인 망우당 곽재우(1552-1617)가 최초의 의병을 일으킨 후 남명의 문도에서 57명이 의병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정규군 이상으로 전열을 다듬고 전략을 세워 왜구를 무찔렀다. 이것은 남명의 문무병중(文武並重)의 교육에 기인한 것이다.⁹¹⁾

남명의 저술에는 노장 관계 문자가 매우 많이 수용되어 있다. 퇴계는 남명을 가리켜 ‘남화(南華)의 학을 제창한다.’고 했다. 남화란 『장자(莊子)』의 별칭인 『남화진경(南華眞經)』을 의미한다. 또한 ‘그 설이 아득하고 신비스러워 노장의 책 속에서조차 보지 못하는 바’라고 평한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은 마음을 천군(天君)에다 비긴 의인체 글로서, 도가적 용어가 들어 있다.

남명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은 경의 사상을 노장 관계 용어를 인용하여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비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태일진군(太一 眞君)’은 『장자』의 「제물론」에서, ‘삼요시발(三要始發)’은 『陰符經』에서, ‘시이연(尸而淵)’은 『장자』의 「재유」편에서 따온 말이다.⁹²⁾ 그의 사상에 있어서 ‘무위(無爲)’는 모든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된 노장적 사유와는 다르다. 거기에는 유가의 인위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남명은 도가의 무위에 유가의 도덕적 실천을 결합하여 현실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도덕의지로 나타난다.⁹³⁾

예컨대 자신의 호 ‘남명(南冥)’도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편에 나오는 봉새의 최종 목적지를 뜻하는 ‘남쪽 바다’에서 취한 것인데, 등 길이가 수 천 리에

90) 『남명집』, 「策問題」, 349쪽.

66) 이동희, 「남명의 한국 사상사적 위치」-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남명의 사상과 그 사상사적 위치』, 12쪽.

92) 이상필, 앞의 책, 42-45쪽.

93) 남명학회 제2회 국제 학술회의 자료집(2002), 『남명학과 한국성리학』, 156-158쪽.

이르는 거대한 봉쇄가 최종 목적지로 삼는 곳이니 만큼, '남명'이란 호에서 거대한 자아와 정신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⁹⁴⁾

이밖에도 그는 경과 의를 판단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교재를 폭넓게 수용하였다. 주로 역사책, 병법, 지리, 천문, 의학 등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었다. 그는 우주의 물리적 구조와 인간사회의 현실적 측면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남명의 교육사상은 성리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교육의 특징을 지닌다.

94) 이상필(1998), 앞의 책, 36쪽.

V. 교육사상사적 의의와 한계

고려 충렬왕 및 충선왕의(1275-1314) 유교진흥책을 기점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성리학은 공민왕(1352-1373)의 과거제도 부활로 재야의 중소지주와 자영농으로 문혀있던 몰락 관료계층의 후예들이 본격적으로 중앙 부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들 신진 사림들이 고려 말 성리학의 담당자가 된다.⁹⁵⁾ 이들의 사상은 조선의 건국이후 이색-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으며 조선 성리학의 선구자인 정도전과 권근이 성리학 학통의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려 말의 유학은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대로 조선 초기의 유학 사상에 연결되었다. 정몽주는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상사에서 그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는 고려가 망할 당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서 후대 사림과 학자들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분의식의 화신으로 떠받들어 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건국에서 정도전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학문적 업적으로도 길재를 훨씬 능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자로 기록된 것은 정몽주였다. 길재 또한 조선의 건국 이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정절을 지킨 것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김숙자는 『소학』을 중시하였고, 김굉필 역시 '소학동자'로 자칭할 정도로 소학을 중시하였다. 소학은 철학적인 면보다는 윤리 도덕의 지침서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므로 소학의 중시는 곧 실천 지향적 성격

95) 유초하(1995), 『한국사상사의 인식』, 한길사, 71쪽.

을 강하게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⁹⁶⁾

김종직은 주자학적 윤리도덕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사림을 통한 사회 적용에 힘쓰고자 하였다. 조광조 역시 사람이 비록 아름다운 바탕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학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궁리(窮理)를 근본으로 하되 결코 형식적인 문자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광조의 사상은 학문 지식에 대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태도로 과거 합격만을 위한 사장(詞章) 중심의 학풍을 반대하고 지행병립(知行並立)의 교육관을 나타냈다.⁹⁷⁾

남명은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를 본받으며, 고려 말부터 조선조까지 이어져 내려온 절의와 실천의 도학 정신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실천한 사상가이다. 그는 이러한 절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명분 없는 시대의 관직을 거부하고 평생을 처사로 지냈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날카로운 비판의 상소를 올렸다. 또한 제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출세를 위한 과거 공부나 현실을 외면한 이론 탐구가 아니라 강하고 주체적인 정신을 길러,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가 당시의 중요한 수양법인 경(敬)과 함께 의(義)를 중시한 것도 이러한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1. 교육사상사적 의의

남명의 교육사상이 지니는 교육사상사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조 교육의 특색과 교육사적 의의를 살펴보겠다.

조선조 시대의 교육적 특색은 성리학적 우주론, 인생관, 교육관으로 표현된다. 인

9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위의 책, 155-157쪽.

97) 김인회. 정순목 공저(2003), 『교육의 역사적 기초』, 한국학술정보(주), 258쪽.

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주자성리학은 주지적(主知的), 귀족적(貴族的), 학구적(學究的)인 이념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념의 교육적 적용은 자연히 로고스적인 관념론에 빠지기 쉬웠고, 일반서민을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치자(治者)를 위한 관료지향의 교육이 주된 교육 형식과 목적이었다. 민중을 위한 형식교육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세습적 직업교육 역시 하천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조선의 교육은 성별에 있어서 남성 본위의 교육이었으며,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경전(經典)중심, 문장(文章)중심의 인문교육으로 실업교육을 천시하는 교육이었다. 따라서 삶을 위한 교육보다 앎을 위한 교육이 참다운 것이라고 그릇 인식되었다. 98)

이러한 편협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유학교육은 우리 겨레의 삶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좋은 싫든 하나의 관념으로서의 사상이 그 당시만큼 실생활에 밀착된 시대는 역사상 그리 흔하지 않다. 온 나라의 백성이 한결같이 '인륜도덕(人倫道德)'의 행위 규범을 생활화하고자 하였다. 조선조 유교 교육자, 좁게는 성리학자의 학문적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안목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거나 낮은 수준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문화와 사상은 언제나 정치경제적인 위압에 의하여 신장(伸張)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선의 봉건왕조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적 당위성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99)

이러한 조선조 교육이 지닌 특색과 교육사적 영향에서 남명의 교육사상이 지닌 교육사상사적 의의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조선 중기 교육의 이론적 관념화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98) 위의 책, 252-256쪽.

99) 위의 책, 256-267쪽.

16세기의 조선의 교육은 교육 대상과 기능에 따라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피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지배 계층의 교육은 양반들을 상대로 경전과 성리학 이론서를 가르치면서 학문적 성숙과 사상의 깊이를 더하면서 내면화와 관념화의 과정을 거쳐 점차 이론화되었고, 피지배계층인 백성의 교육은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유학적 가치와 도덕 윤리를 생활화함으로써 민중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 내는 교화(敎化)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은 창건 시 불교를 기반으로 한 고려에 대항 할 대안 문화 이데올로기로 송(960-1279) 명(1368-1644)의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정주(程朱)의 송명리학은 국가의 공식적인 보호와 후원으로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중국의 신유학이 불교 철학과 도교의 우주론을 흡수하고 합성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체계를 이루어 불교와 도교를 제압한 것과는 달리 조선의 유학은 이미 고도의 체계화 과정을 거쳐 완성된 주희의 사상과 문헌을 그대로 수입함으로써 불교를 이기기 위한 전략과 선택적 수용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은 주자학을 벗어나는 지성의 자유가 단호히 거부되었으며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획일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체제로 자리한 주자학은 이단을 철저히 배격하며 주자학 본래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였으며, 주자학에 사로잡혀 중국을 성지처럼 숭배하였다. 천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느라 사변화된 교육 사상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완전히 거부하는 엄숙한 도덕과 명상으로 천리와 합일을 이루는데 집착하였기 때문에 마치 침묵의 빙산에 뒤덮인 황막한 들판이 되었다. 행동과 변화가 없는 내면으로 움츠러든 조선의 성리학은 중국을 지나 먼 극단에서 있었다. 남명이나 서경덕 같은 사상가들의 독자적인 적응과 변화는 광야에 울리는 목소리였으나 이단이라는 철창

에 간혀 별 소용이 없었다.¹⁰⁰⁾

조선은 고도로 사변화된 성리학을 국가의 정통 체계로 수용하면서 초기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도학적(道學的) 전통에서 점차 멀어져 형이상학적 사색과 지적 획일주의, 도덕적 경직성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나 교육가들은 '무엇이냐'라는 인식 문제에 몰두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소홀히 하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남명의 교육사상은 조선 초기의 실천적인 사상을 철저히 이어받았다. 그리하여 조정의 부패와 민중의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이론 탐구와 경전 해석에서 탈피하여 실천적인 교육을 실행하였다. 그는 당시의 문제가 지식이나 이론적 기반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알고 있는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사변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강한 자아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교육을 지향하였다.

실천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실천을 인간 생존에 관련시켜 설명할 때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실천은 무엇보다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인간의 생존은 자연과 관련된 생산 활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천은 이론을 필요로 한다. 인간 생존의 조건이 되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실천은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¹⁰¹⁾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남명의 실천적 교육사상은 생산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생산자인 민(民)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비록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 관직을 사임함으로써 민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으며, 평생을 국가의 백성으로 지내면서 교육에만 전념한 것은 간접적인 생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관념인 실천은 이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한 남명과 거리가 있

100) 황병태, 위의 책, 611-615쪽.

101) 한준상(2003), 『교육학적 상상력』, 한국학술정보(주), 32쪽.

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론이란 체계적인 저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존과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비록 남명이 저술을 기피하여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유학 경전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병법, 의학 등의 서적을 읽었으며, 육왕학과 노장사상에도 심취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천을 위해 이미 그는 스스로 인간의 생존과 자연현상에 대한 내면적인 이해와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판적인 상서와 엄정한 출처, 수많은 제자 교육을 통해서 남명은 사회적인 실천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실천과 이론의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교육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도 세 가지 형태로 지적될 수 있는데 첫째, 교육실천을 이론의 종속개념으로 사용하는 형태. 둘째, 교육실천과 이론을 동일시하는 형태. 셋째, 교육행위를 실천의 보조 혹은 변증법적 관계 개념으로 설정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교육실천과 이론 간의 관계를 동일시하는 경우와 이론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형태는 교육현상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에서 흔히 발견된다. 반면, 교육이론을 실천의 보조개념, 혹은 변증법적 관계개념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은 교육현상을 진보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에 의해 분명하게 부각된다.

일과 이론의 결합과 실천지향은 사람들이 사유중심의 지식획득자가 아니라, 지식 습득과 실천의 주체로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현실 세계를 변형시키는 능력의 심화 행위 과정이라고 파악된다.¹⁰²⁾

남명은 경의사상을 통하여 교육실천과 이론을 동일시하였으며, 이론의 우위성을 강조한 퇴계와 비교하면 실천의 우위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퇴계가 교육현상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려했다면 남명은 조선 초기 유학의 실

102) 위의 책, 33쪽.

천적 성향을 계승하였으며, 조선 중기에 이르러 교육이 관념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였다. 나아가 그의 사상과 삶은 지식 습득과 실천의 주체로서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적 현실을 변형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의 사상사에서 그가 제외되거나 소홀히 다룬 것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 사상이 절의와 실천의 도학 정신에서 떨어져 관념적 이론의 심화와 사변화로 방향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유학의 도학적 학풍을 조광조 뒤에 조식을 더하여 김굉필-조광조-조식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모화사상(慕華思想)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유자(儒者)들은 유교사상을 존송하는 나머지 중화(中華)를 자국(自國)보다 높이고 자국을 천시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을 대국(大國)이라하고 자국을 이적(夷狄)이라 하여, 주객을 구분하지 못하여 자주정신을 마멸시키고 독립사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실례로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위시하여 중국 명나라의 연호를 의리관계로 최근까지 사용한 경우가 그것이다.¹⁰³⁾

남명의 주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남명학과 화담학파로 구성된 북인 정권과 매우 관련이 있다. 광해군¹⁰⁴⁾ 대 북인의 사상은 성리학의 의리

103) 현상윤(2003), 『조선유학사』, 서울;현음사, 25쪽.

104) 광해군(1575-1641, 재위기간; 1608-1623, 15년 1개월, 유배 기간 18년)

박영규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264-265쪽에서 광해군의 실리적이고 과단성 있는 정책은 인조반정으로 중단되었으며, 대명 사대주의자들에 밀려 자신의 실리적 외교론과 현실 감각에 바탕을 둔 정치 이론이 꽃 피우기도 전에 밀려난 불행한 왕이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역사학 연구소저, 『교실 밖 국사여행』 135-136쪽에서도 광해군은 15년 동안 서적편찬, 사고 정비, 성곽과 병기의 수리, 호패의 실시 등 임란 복구 작업과 민생 안정

명분론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그들은 대외관계에서 명과 후금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들 북인은 양명학. 노장사상. 불교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여 상공업의 강조와 삼교회통(三敎會通). 박학적 성격이 특징이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세련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운영의 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 후 주자학의 절대화에서 벗어나 상대화를 추구하던 사상적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벗어난 폐모살제(廢母殺弟)와 중립외교, 대규모 토목공사로 서인¹⁰⁵⁾과 남인에게 반정의 명분을 제공하여 인조반정으로 북인들이 축출되자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도 배척되었다. 이 후 퇴계와 율곡으로 대표되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¹⁰⁶⁾

당시 조선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중화(中華)세계의 붕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조선에서 소중화(小中華)를 세우려던 길과 다른 하나는 중화세계의 붕괴를 인정하여 대명의리론을 포기하고 청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였다. 이 시기에 조선은 중국과 군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위치로 격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¹⁰⁷⁾ 그런데 인조반정과 북인의 몰락, 병자호란, 서인의 집권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의리명분적 요인이 규정력을 가지게 되었다.¹⁰⁸⁾ 따라서 이 후 조선의 역사는 의리명분적

에 힘을 기울였으며, 미묘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실리 외교를 펴 대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105) 북인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노선을 걷고 있던 반면에 서인은 철저한 대명 사대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다.-박영규, 앞의 책, 284쪽.

106) 한국역사연구회(1997), 『한국사상사의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청년사, 107-109쪽.

107) 박영규, 위의 책, 265쪽.

108) 역사학연구소저, 위의 책, 135쪽에서 새로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 정권은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쓰러져 가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고집하다가, 결국 청에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여 국가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였다.

사상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예학(禮學)연구가 심화되어 17세기에 ‘예학의 시대’를 맞게 된다.¹⁰⁹⁾

비록 인조반정으로 남명 문인과 화담 문인으로 구성된 북인의 사상이 꽃피우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사대주의와 모화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교육사상사적으로 의의가 매우 크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의 급격한 확산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내면화와 심화 단계에 이르러 개인의 자유와 사고를 깊숙이 파고들면서 올바른 판단과 평등한 권리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와 경쟁적인 교육에 스스로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주체적으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철학과 이념이 절실하다. 이러한 때에 남명의 교육과 사상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냉철한 파악과 올바른 판단에 지침이 된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실학사상(實學思想)의 기저를 마련하였다.

남명은 민생의 유랑, 서리의 횡포, 흉년, 왜구의 약탈, 전염병의 난무, 도적의 출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실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으로 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을묘왜변으로 왜구의 약탈이 심해지자 제자들에게 왜구의 침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찾도록 교육하였다.¹¹⁰⁾ 또한 임진왜란 때에 그의 제자인 곽재우가 경남 의령에서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하여 뛰어난 전략으로

109) 위의 책, 109-110쪽.

110) 『남명집』, 「策問題」, 349쪽.

왜군을 물리친 것은 남명이 무예와 병법에 관심을 가지고 국방과 무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그가 문관 우위의 시대에 문무병중의 교육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남명이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그의 사상이 종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되돌려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남명의 주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이 조선의 교육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의 개방적이고 실질을 숭상하여 현실 구제를 목표로 하는 교육 사상은 실학 사상으로 발전하여 중인계급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인계급의 성장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 근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신분제도의 와해를 촉진시키고 능력주의사회를 앞당기게 되었을 것이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근대화를 앞당겨 일본보다도 빠른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1866년; 병인양요)와 미국(1871년; 신미양요), 일본(1875; 윤요호 사건) 등 세계 열강들이 침입에 주체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을사조약과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치욕적인 역사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이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무리한 유추라고 반박할 여지는 많이 있다. 그러나 근거를 지닌 상상력은 추론의 한 방법이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창조적인 대처 방안을 구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 한계점

남명의 교육 사상이 지니는 가장 큰 한계는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술을

남기지 않은 점이다.

‘정주후 불필저술(程朱後 不必著述)’의 입장¹¹¹⁾으로 체계적인 저술을 기피함으로써 그의 독창적인 사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자료와 근거의 부족은 연구의 어려움과 함께 사상의 계승과 발전을 저해하였다. 남명은 교육 방법상 세밀하고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학기도」에서와 같이 성리학 이론을 함축적으로 도식화하거나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선호하였다. 특히 「신명사도」는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과 교육방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퇴계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다. 게다가 그의 유일한 저서라 할 수 있는 『남명집』이 제자인 정인홍에 의해 편집 발간되면서 스승의 행적에 누가 될 만한 문자를 삭제하거나 첨가하면서 대단한 물의를 초래하였다.¹¹²⁾ 이처럼 그의 교육사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왜곡되고 희미해졌다. 또한 인조반정으로 그의 문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퇴계 문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명확한 체계와 이론을 갖추지 못한 그의 사상과 학문은 이후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저술과 기록은 언제라도 다시 되살아 날 불씨가 될 수 있다. 남명 탄생 500년이 넘는 오늘날에도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그가 올린 상소가 조선왕조실록에 원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학기류편과 시(詩), 부(賻), 서(書) 등의 기록들이 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의 교육 사상이 성리학 외의 여러 사상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현실적이고 행동적인 윤리 유학을 주장하여 실학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1) 정 온(鄭 蘊), 『동계집(桐溪集)』 “有言曰 程朱以後不必著述 深以後學者書立言爲病焉” 남명의 이러한 태도는 그만의 견해가 아니라 중국 명대 초기 이후 사상 통제의 영향으로 보편화되었던 것이고, 조선시대에도 정여창이나 조광조 같은 이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남명은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였던 것이다.

-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이환 편저, 『남명 소식』, 서울 ; 예문서원, 201쪽.

112)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89쪽.

체계적인 이론의 부족으로 성리학 이론의 심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당시의 학풍을 쇠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밖에 남명이 지닌 사상의 한계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가치는 도덕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의 방향을 제한함으로써 정치나 경제적 규범과 비교하여 안정적이고 내성이 강하다.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1966)교수는 가치와 규범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치는 전반적인 도덕 및 규정으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게 되면 사람들을 도덕 공동체로 묶는 특성을 가지는 의식적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규범과는 다르다. 사회적 행동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문화 체제와 연관된 사회의 가치 구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러한 사회 가치는 어떤 것이 좋은 사회, 좋은 행동, 좋은 관계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말해 주기 때문에 가치는 개인의 태도와 사회 생활 관계의 방향을 제한한다. 사회 가치 체계는 사회적 행동 가운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리스트를 만든다. 가치 체계는 경제적 혹은 계급적 힘과 비교할 때, 훨씬 안정적이고 내성이 강하다.¹¹³⁾

조선의 유학자인 남명의 사상은 유학사상이 지닌 가치와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거츠(Chifford Geertz)는 문화와 사회 구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루어 내는 직조물이다. 사회 구조는 행동이 일어나는 형태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113) 황병태(2001), 『유학과 현대화』, 우석출판사, 20쪽. 재인용.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1966), 『혁명적 변화』, 보스턴:Little, Brown & Co., p 42, 56.

인간 관계의 네트워크다. 문화와 사회 구조는 동일한 현상에서 도출된 다른 분야의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는 사람의 행동이 의미를 지니는 측면에서 사회 행동을 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같은 행동이 사회 체계의 기능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¹¹⁴⁾

일반적으로 유학의 한계점으로 모화사상(慕華思想), 당쟁(黨爭), 가족이기주의, 계급사상, 무(武)의 천시, 산업능력의 저하, 상명주의(尙名主義), 복고사상(復古思想) 등을 들고 있다.¹¹⁵⁾ 이러한 유학의 한계는 사실상 한국 사상의 약점이므로 드러내기보다는 감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은 전통으로 이어져 여전히 현대사회의 곳곳에 잠재적으로 남아 결정적인 순간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학은 과거로의 회귀와 전통에 대한 정서적 집착이라는 정감주의와 현실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이지주의의 양면을 유지해 왔다. 정감주의와 이지주의의 양면성은 인간의 내적 수양과 사회 참여라는 외적인 활동에서 미묘한 긴장관계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유학의 양면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하면서 2천여 년 동안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¹¹⁶⁾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두 측면이 그토록 오랫동안 공존하며 사회와 문화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대부 계급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내적으로는 냉정하고 경건하게 개인적 수양에 전념하여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적으로는 학문과 지식을 갖춘 관료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양면을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치열하게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억제하여 내적 수양을 쌓았으며,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모순된 긴장 상태를

114) 앞의 책, 34쪽. 재인용.

클리포드 거츠(Clifford Geertz)(1973), 『문화의 해석』, 뉴욕:Happer & Row, pp.171-175.

115) 현상윤(2003), 『조선유학사』, 서울 : 현음사. 25-29쪽.

116) 황병태, 위의 책, 199쪽.

온 몸으로 버텼다. 사대부의 부상과 확산이 곧 유학의 성장과 발전이었다. 사대부의 수준 높은 지식과 도덕적 책임은 군주도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점은 또한 군자 엘리트 계급과 평민 피지배 계급의 명확한 신분적 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방패이기도 하다.

남명도 사(士)의 한 사람으로서 내적 수양과 사회 참여에 충실하였지만 공자와 동시대의 사상가인 서경덕이 서자나 증인을 제자로 둔 것처럼 계급과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은 것은 그의 교육 사상이 지닌 한계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오천석은 『스승』에서 지식교육이 아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고에는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에 의거하지 않은 사고로써는 올바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식은 사고의 원천으로 우리가 차세대에 지식을 전수한다면 그것은 지식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고의 수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옳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을 기르는데 있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지성을 구사하여 생각할 수 있는 풍토와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습성을 길러 주는 일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지식을 통하여 사고의 형식적 절차를 가르칠 수 있어도, 사고 자체는 가르칠 수 없으며, 생각하는 자는 학생 자신이요, 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전통을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면서 현실에 비추어 재해석될 때 바람직한 전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를 있게 한 전통을 무시하여도 안 되지만 그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전통주의의 장벽을 초월하여 새 해석으로써 전통을 살려야 할 것이다.¹¹⁷⁾

117) 오천석(2001), 『스승』, 서울: 교육과학사, 182-189쪽.

VI. 결 론

남명 조식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처사(處士)상으로 지목되는 교육사상가이자 교육실천가이다. 그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의 정좌 수행과 도가의 사상을 수용하였으며, 폭넓은 독서로 개방적이고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하였다.

그는 조선의 4대 사화(士禍) 중 3대 사화를 겪으면서 관직을 포기하고 산림 처사로 일생을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그는 절의를 실천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의 영향을 받아 주자학 일변도의 관념적인 사상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자기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의 사회적 실천 행위는 사(士)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높은 도덕과 학식을 바탕으로 민중의 대변인으로서 때로는 군주의 스승으로서 직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처사로 일관한 것도 이러한 저항과 실천의 한 방법이었다.

그의 교육 사상은 성리학적 민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경건한 태도로 자기수양을 철저히 쌓아 사회적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의 교육 사상의 핵심은 경의(敬義) 사상으로 요약된다. 그의 교육사상은 경(敬)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한 퇴계와는 대비되게 경(敬)과 의(義)를 함께 강조하고, 실천적 교육사상으로서 지행일치(知行一致)를 강조하였다. 독서를 할 때 장구에 연연하지 않고, 글의 뜻을 완미하여 자득(自得)하게 하였으며, 일상의 긴요한 말이 있으면 세 번 반복한 뒤에 기록해 두었고, 현실에 쓸모 있고, 실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주체적인 인간을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유학의 경(敬)사상에 자신의 수양론을 접목시켰고, 의(義)사상에 실천론을 융화시켰다.

또한 도가서인 『장자』에 심취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사서인 『동국사략』 외에도 폭넓은 독서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학풍을 이루어 당시로서는 드물게 문무

겸비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문무겸비의 교육은 임진왜란 때에 가장 먼저 그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항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명 교육사상의 특징은 도덕적 주체성 확립을 강조, 실천을 중시의 교육, 다양한 학문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요약된다.

교육사상사적 관점에서 볼 때, 남명의 교육은 당시 사상계의 흐름에 반기를 든 것으로 관학으로서 타학문에 비하여 배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주자학적 성리학이 조선 초기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도학(道學)적 전통에서 점점 멀어져 형이상학적 사색과 지적 획일주의로 경직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는 유학 본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천 위주로 나아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남명은 '무엇이나'라는 인식론적 문제에 몰두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규범 문제를 소홀히 하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소학』 교육을 통하여 도덕성 함양과 사회적 실천에 중점을 두어 현실 문제와 유리된 채 사변적으로 흐르는 학풍을 쇠퇴시키고자 하였다.

남명의 교육사상은 다음과 같은 교육사상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조선 중기 교육의 이론적 관념화를 탈피하여 실천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둘째,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모화사상(慕華思想)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실학사상(實學思想)의 기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남명이 '정주후 불필저술(程朱後 不必著述)'의 입장으로 체계적인 저술을 기피함으로써 사상의 계승과 발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의 사상이 지닌 가장 큰 한계이다. 또한 사(士)의 한 사람으로서 내적으로는 냉정하고 경건하게 개인적 수양에 전념하여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적으로는 학문과 지식을 갖추어 사회 참여에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공자나 동시대의 사상가인 서경덕이 신분의 구별 없이 서자나 중인을 제자로 둔 것에 비해 신분을 초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학 사상이 본래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명은 '저 홀로 환하게 꽃피는 나무' 나 '깊은 산 속에서 종일토록 향기를 내뿜는 난초 꽃' 이 아니라 '드넓은 남쪽 바다의 용'이 되어 산천을 우레와 같이 울리고 세상을 일깨우고자 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도덕적인 자아의 실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생존했던 시대를 직시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는 잘못된 현실을 외면하고 산 속에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으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이론적인 학문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완벽한 이론을 갖추고 있더라도 날개가 없다면 그 이론은 펼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이미 실천하여 날고 있는 자는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만약 크고 깊은 이론을 갖추었다면 그에 알맞은 날개를 지닐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즉, 학문의 깊이만큼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이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길에서 묵묵히 떨어진 휴지를 줍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행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고 값진 일이며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인들 중에는 이론적 전문가가 많지만 그에 걸맞은 실천이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사회와 역사는 백 명의 지식인에서가 아니라 한명의 실천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혼란한 중국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것은 수많은 제자백가의 이론이 아니라 진시황제의 행동이었으며, 일제의 식민지 만행을 단죄한 것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 천년동안 많은 학자들이 사상과 이론을

쌓아온 수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인이 아니라 변방의 소국인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의 목숨을 바친 실천이었다. 잘못된 사상은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며, 올바른 사상은 올바른 행동을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교육은 올바른 인간을 기른다. 여기서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를 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평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되새기게 된다.

남명은 마지막까지 현실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혁파를 주장하면서 종소리를 내는 역할에 충실했다. 비록 관료로 진출하여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지식인으로서 사상가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남명의 이러한 행동을 단지 산림에 은거하던 한 선비의 충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국 애민하는 사림의 정국 비판으로 볼 것인가, 또는 국가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교육 실천의 의지로 볼 것인가는 현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창동(2003). 『한국의 교육문화사』. 서울 : 문음사.
- 경북대 퇴계연구소·경상대 남명학연구소 편(2001). 『퇴계학과 남명학』. 서울 : 지식산업사.
- 경상남도(2000). 『남명 조 식 선생』. 경상남도.
- 고영진(1999).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풀빛출판사.
- 곽신환(2005). 『조선조 유학자의 지향과 갈등』.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권인호(1990). 「조선 초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연구- 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금장태(2002). 『한국 현대의 유교 문화』.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경희·장세근(2004). 「퇴계학의 심학적 특성과 '일상'교육의 의미」, 『교육문제연구』 제39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기석(1999). 『교육역사사학회』.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대용(1996). 『조선 초기 교육의 사회사적 연구』. 서울 : 한울아카데미.(1985).
- 김맹수(1985). 『남명 조식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인회(1993).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서울 : 문음사.
- 김인회. 정순목(2003). 『교육의 역사적 기초』. 한국학술정보(주)
- 김영식(1996). 『교육사. 교육철학』.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용욱(1985).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민음사.
- 김용치 외 저, 조성을 역(1989). 『중국사상사』. 서울: 이론과 실천.
- 김윤수(1992). 「남명집의 책판과 인본의 계통」. 『남명학연구』 제2집. 경상대학교.
- 김찬호(2004). 『사회를 보는 논리』.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김창욱(1996). 『16세기 초기 서원의 강학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충렬. 「남명학의 요체 - 경·의」. 『남명학 연구논총』 제1집.
- 김형효 외(2000). 『민본주의를 넘어서』. 서울 : 청계.

- 남명학연구소(1995). 『남명의 사상과 그 사상사적 위치』. (자료집)
- 남명학회·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2002). 『남명학과 한국성리학』 (자료집)
- 남명연구원(1999). 「대곡 성운의 학풍과 처세」. 『남명학 연구논총』 제7집.
- 남명학연구원(2000). 『경남정신의 뿌리 남명 조식 선생』. 경상남도.
- 노상우(2004). 『교육의 역사와 사상』. 서울 : 교육과학사.
- 목영해 외(2004).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 교육과학사.
- 박기용 외(2002). 『조식의 학문과 교육』,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 박병련 외(2001). 『칼을 찬 유학자 남명 조식』, 서울 : 청계출판사.
- 박영규(1996). 『조선왕조실록』. 서울 : 들녘.
- 박재문(2001). 『한국교육사』. 서울 : 학지사.
- 사재명(2002). 「조선중기 남명의 교육이론 계승 : 인간 본성의 회복 강조」. 『남명학 연구논총』 제11집.
- 사재명·전영국(2004). 「남명 조식 교수법의 Comenius적 접근」. 『남명학 연구논총』 제13집.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0). 『한국교육사』. 서울 : 교육과학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2004).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새로운 지향』. 서울 : 청어람 미디어.
- 손병욱(1992). 「남명 '경의'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수행(I)」. 『남명학 연구논총』 제2집. 남명학연구원.
- 손영식(1996). 「남명 조식의 주체성 확립 이론과 사림의 정신」. 『남명학 연구논총』 제4집. 남명학연구원.
- 손영식·조남호(2002). 『남명 조식의 철학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 연구』 상권. 서울 : 문음사.
- 신귀현(2001). 『퇴계 이황 예잇고 뒤를 열어 고금을 꿰뚫으셨소』. 서울 : 예문원.
- 신득렬(2001). 『교육사상사』. 서울 : 학지사.
- 신병주(1989). 『남명 조식의 학문 경향과 현실 인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영복(2004). 『강의』. 경기 : 돌베개.
- 역사학연구소(2004). 『교실 밖 국사 여행』. 파주 : 사계절.

- 예문동양사상연구원·오이환 편저(2002). 『한국의 사상가 10인 : 남명 조식』. 서울 : 예문서원.
- 오만석 외(2000).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오천석(2001). 『스승』. 서울 : 교육과학사.
- 유관열(1991). 『조식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유근호(2004). 『조선조 대외사상의 흐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정동(1985). 『한국 유학의 재조명』. 유정동 선생 기념사업회.
- 유초하(1995). 『한국사상사의 인식』. 서울 : 한길사.
- 윤사순(1998).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동희(1995). 『남명의 한국사상사적 위치』. 남명학연구소.
- 이만규(1986). 『조선교육사』. 서울 : 한국학진흥원.
- 이상필(1998).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승원(2002). 『한국교육사상의 전개와 발전』. 서울 : 보고서.
- 이원호(1998). 『교육사상사』. 서울 : 문음사.
- 이정은(1995). 『퇴계 이황의 교육사상 연구 : 경 사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John White 저, 이지현·김희봉 역(2002). 『교육목적론』. 서울 : 학지사.
- 이진표(2002). 『한국사상사』. 서울 : 학문사.
- 이효제(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장덕삼(2002). 「남명사상의 교육방법론적 고찰」. 『한국교육사학』 제24권.
- 장덕삼(2003). 『한국교육사』. 서울 : 동문사.
- 장상환, 정진상(1994). 『한국 사회의 이해』. 경남: 도서출판 지리.
- 전병윤(1984). 「남명의 사상과 문학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정낙찬(2002). 「남명 교육방법론의 현대 교육적 의미」. 『남명학 연구논총』 제11집.
- 정낙찬 외(2002). 『한국의 전통 교육』. 영남대학교 출판부.
- 정옥자(2001). 『조선 중화사상 연구』. 서울 : 일지사.
- 정희숙 외(1993). 『동양교육고전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G.F.넬러 저, 정희숙 역(1990). 『교육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서광사.
- 전영조(2001). 「16세기 서원 교재의 교육내용 분석」. 『경남교육학연구』 제6권.
- 조동일(1996). 『우리 학문의 길』. 서울 : 지식산업사.

- 조 식 저,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역(2001). 『남명집』. 서울 : 한길사.
 _____(2002). 『학기류편』. 서울 : 한길사.
- 주홍성 외(1993). 『한국 철학 사상사』. 서울 : 예문서원.
- 중국철학연구회(1993). 『중국의 사회사상』. 서울: 형설출판사.
- 지두환(1999). 『한국사상사』. 서울 : 역사문화.
- 지정향(1997). 『17세기 남명학파의 처사적 성향과 교육활동』.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차석기(1986). 『교육사. 교육철학』. 서울 : 집문당.
- 채휘균(2001). 「남명 敬과 義 교육사상」. 『남명학 연구논총』 제9집.
- 첸리푸(2000). 『동양의 인간과 세계』.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최관경 외(2003). 『교육사상의 이해』. 서울 : 형설출판사.
- 최근덕 외(2001). 『조선조 성리철학의 구조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최봉영(1997). 『조선시대 유교문화』. 서울 : 사계절출판사.
- 최영진(2002).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재성』.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최영진 · 지준호 편(2004).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새로운 지향』. 서울 : 청어람
 미디어.
- 한국교육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2003). 『자생적 한국 교육학의 미래』. 서울 :
 원미사.
- 한국사상연구회(2000).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 예문서원.
-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1996). 『조선 유학의 학파들』. 서울 : 예문서원.
- 한국역사연구회(1997). 『한국사상사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 서울 : 청년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1). 『퇴계 · 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학술회의』 (미간행
 자료집).
- 한국철학사연구회(1997).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 한울아카데미.
- 한국철학사상연구회(2000). 『강좌 한국철학』. 서울 : 예문서원.
- 한상규(1990). 『조식의 교육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_____(2001). 「남명 '경·의'의 교육철학적 이해」. 『남명연구논총』 제9집. 남명학
 연구원.
- 한형조 외(2001). 『유교의 공부론과 덕의 요청』. 서울 : 청계.
- 함재봉(2002). 『유교 · 자본주의 · 민주주의』. 서울 : 전통과 현대.

함재봉·함재학·데이빗 홀 편(2000). 『유교 민주주의 왜 & 어떻게』. 서울 :
전통과 현대.

현상윤(2003). 『조선유학사』. 서울 : 현음사.

홍성희(1997). 『남명 조식의 작가의식 연구-경의정신과 노장적 취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황병태(2001). 『유학과 현대화』. 서울 : 우석출판사.

황준연(1992). 『한국사상의 이해』. 서울 : 박영사.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Ideas of Nammyeong Jo Shik

Kim Mi-seon
Major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and limitation that his educational thoughts have, by considering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in Nammyeong Jo Shik during the mid of Joseon. As for the contents of this study, it tried to first examine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in Nammyeong and to consider how he recognized the reality in those days, focusing on lifetime. Next, it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Eui thought, which is the core of his educational ideology, and based on this, of educational thoughts, and finally, presented the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and limitation that his educational thoughts have.

Joseon in the 16th century where he had lived, was the uncertain period that many classical scholars lost life due to the repeated massacre of scholars, as well as the corrupt public officials and the wandering of the masses. This historical circumstances are not unrelated to the reason why he contributed to the learning and education while having given up a government post and led a life in the forest. He placed emphasis on practical

education rather than theoretical education, by directly experiencing people's difficulty while having lived in a region after succeeding to the practical academic traditions of Seongrihak in the early Joseon. He presented a memorial to the king that informs of people's hardship and criticizes a mistake of the royal court, and what he rejected this despite the several times of recommendations for a government position, is representing the social practice.

His educational thoughts are having the Min-Bon thought as basic ideology. The Min-Bon thought regards Min's education as important. In terms of Min, it is seen that, if education is rightly carried out under the proper environment, the order is possible even without coercion, and the embodiment of good community is also available.

The core of his educational thoughts is summarized as the Gyeong-Eui thought. His educational thoughts emphasized Gyeong (respect) and Eui (justice) together, in comparison with having developed the ideology centering on Toegye Gagyeong, and stressed Jihaengilchi as the practically education thoughts. He had what accumulates self-culture with Gyeong and based on this, attains social practice, as Eui, and identified Eui and with Gyeong.

In terms of an educational method, he allowed it to be understood with bearing the meaning of letters in mind, rather than the interpretation of Gyeongjeon or the theoretical description. He preferred a diagram that implied a theory, and the education through a metaphor.

He accepted not only Seongrihak, but also the thoughts of Buddhism

and Taoism, and formed the open and independent thoughts with the broad reading. Also, he pointed to the education of Munmubyeongjung, uncommonly at that time. Thi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his disciples foremost organized voluntarily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and then did spread systematic strugg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The characteristics of his educational thoughts are summarized as 1) the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moral identity 2) the practice-centered education 3) the open and receptive attitude toward diverse learning.

Through his educational thoughts, it can be found the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as follows.

First, he criticized the theoretical idealizing of education in the midst Joseon and pointed to the practical education.

Second, he tried to escape from toadyism and the Mohwa thought (China-first thought), by subjectively accepting Seongrihak.

Third, he arranged the foundation of the Shil-Hak thought, with the practical education that took into account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 biggest limitation that Nammyeong's educational thoughts have, is what failed to systematically arrange and record ideology. He argued that the precise and systematic theoretical book was already written, thus it had better devote to learning and studying this, compared to writing a new theoretical book. Also, what failed to be attained the education beyond class and a social position, is another limitation that his educational thoughts have.

This study tried to seek for the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and limitation through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in Nammyeong

Jo Shik. Through a study like this, it will become a guide in putting forward a direction to which Korea's current education needs to advance, by being rightly established Nammyeong's education that was had been distorted in the meantime, and by being re-interpreted the past education. The comparative consideration between Chinese thoughts and Japanese thoughts that this study failed to examine, is a subject that needs to be followed by an in-depth study in the future.

부록 1. 연표

1. 과거공부와 학문의 전환기(1501-1530)

1501년(연산군7) 경남 합천에서 조언형(曹彦亨)의 장자로 출생.

1519년(중종15) 기묘사화로 숙부 조언경이 파직됨. 천문, 지리, 의학, 수학, 병법 등을 두루 공부하여 안목을 넓혔다.

1525년(중종21) 과거공부에 회의를 느끼고 학문에 전념할 뜻을 가진다.

2. 성리학에 침잠하던 산해정(山海亭) 시대(1530-1547)

1530년(중종25) 경남 김해에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1536년(중종31) 강학(講學)을 하고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538년(중종33) 현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3. 직언을 서슴지 않던 뇌룡정(雷龍亭)시대(1548-1560)

1548년(명종3) 전생서 주부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합천에 뇌룡정(雷龍亭)을 짓고 12년간 강학하였다.

1549년(명종4) 거창 감악산을 구경하고 '욕천(欲川)'이라는 시를 지었다.

1555년(명종10) 단성현감에 임명되었으나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를 올려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였다.

1559년(명종14)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4. '경의(敬義)'를 실천한 산천재(山川齋) 시대(1561-1572)

1561년(명종16) 지리산 덕산동에 산천재(山川齋)를 짓고 교육하였다.

1566년(명종21) 상서원 관관에 임명되어 입궐하여 명종을 만나고 돌아왔다.

1568년(선조1) '무진봉사(戊辰封事)'를 올려, 서리(胥吏)망국론을 지적 함.

1572년(선조5) 자신의 칭호를 '처사(處士)'로 하라 이르고, 마지막까지 경(敬)과 의(義)의 중요성을 말한 뒤 숨을 거두었다.

1615년(광해7) 영의정에 추정하고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부록 2. 신명사도 (神明舍圖)

